

공군

www.airforce.mil.kr



2005.4 / 제322호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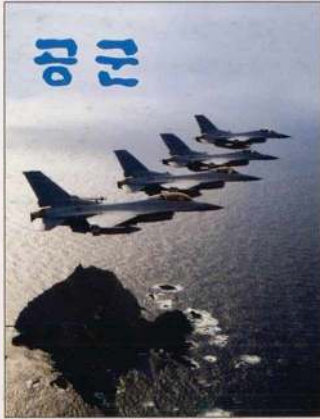
F-15K 1호기 출교식 / F-15K, 세상 속으로

Zoom In / 공군을 만드는 사람들, 제91항공시설전대

공군

Contents

제322호 | 2005.4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 중인 대한민국 공군 F-16 전투기



19



공군소식 - 무사고 5,000일의 '대박'을 터뜨리다!



I LOVE AIR FORCE 영원한 '공심' 소설가 노은의 공군사랑

4	대통령 연설문 전문
6	참모총장 스케치
8	공군은 지금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
12	"신임 보라매들의 힘찬 비상"
	생각해 봅시다
15	독도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謹弔
18	주영복 前 공군참모총장 별세
	공군소식 I
19	무사고 5,000일의 '대박'을 터뜨리다!
	공군소식 II
20	다이만 부대 1진, 5개월 간의 완벽한 임무수행 후 귀환
	I LOVE AIR FORCE
22	영원한 '공심' 소설가 노은의 공군사랑
	F-15K 1호기 출고식
24	F-15K, 세상 속으로
	특별기고
26	F-15K 출고, 앞으로의 과제
	현장탐방
28	새 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공군 항공기
	Zoom In
31	공군을 만드는 사람들, 제91항공시설전대
	세계의 항공무기
34	소직경 폭탄 SDB



세계의 우주력 정찰위성체계	36
4월의 공군 역사	38
테마가 있는 나들이 달맞이 고개와 송정 해수욕장	39
그림 이야기 지고도 이기는 법	42
법률상식 사법부의 독립	44
건강 365 고혈압의 생활요법	46
동아리 마당 제19전투비행단 국궁동아리 『중원 궁도회』	48
문화마당 4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50
마음으로 읽는 글 느림	52
영화 이야기 밀리언 달러 베이비	54
책으로 읽는 세상 총각네 야채가게	56
기상전망대	57
독자의 소리	58
다른 그림 찾기	61
보라매 단상	62
알립니다	63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

연설문



친애하는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생 여러분,
학부모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명예로운 대한민국 공군장교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 여러분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처럼 늠름한 정예장교들을 길러낸 학교장 김명립 장군과 교수, 훈육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모님들께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장한 아들딸들을 두셨습니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시도 마음의 긴장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당당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느낍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에 맞서 이를 물리치고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평화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던 우리의 평화주의는 무의미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지켜보아야 했고, 강탈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를 지킬만한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막강 국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이 더욱 기쁘고 자랑스롭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의 안보 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과 병행해서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 역할의 확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그동안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고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더욱 더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정예화 해야겠습니다. 군 구조를 개편해서 각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인사를 비롯한 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의 노력은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방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은 강력한 혁신의지로 반드시 해낼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용맹스럽고 사기충천한 보라매가 되어 우리의 하늘을 수호하실 것입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력은 전쟁역제의 핵심전력일 뿐만 아니라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공중조기경보 통제 능력, 정보·정찰 전력 등을 강화해서 자주국방의 선봉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는 필승공군의 힘찬 기상과 명예를 더욱 높여갈 여러분을 굳게 믿습니다. 조국을 위해 군인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의 앞날에 나와 우리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운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8일

대통령 노무현



참모총장 스케치



다이만 부대 2진 파병 장병 격려

참모총장은 3월 10일, 공군본부에서 다이만 부대 2진 파병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지에서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당부했다.

공군사관생도 53기 졸업 및 임관 축하

참모총장은 3월 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된 5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여 후배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했다.





대미 군사외교 활동

참모총장은 3월 13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 미 공군참모총장과 태평양공군사령관 등 군 주요 인사를 만나 군사교류협력 확대와 연합 작전능력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은 미 공군본부를 방문, 존 줘퍼 미 공군참모총장(대장, John P. Jumper)과 기념품을 교환하는 모습

F-15K 1호기 출고식 행사 참석

참모총장은 3월 16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보잉사의 F-15K 1호기 출고식 행사에 참석하고, 생산공장을 돌아봤다. 사진은 출고식 행사에서의 연설장면





1 제8전투비행단은 광복 60주년 3·1절을 맞아 모든 격납고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완벽한 조국 영공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2 500만km 무사고 차량 운행 기록을 수립한 제16전투비행단 수송대대



3 제15헌성비행단이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 화생방 훈련



4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공군기술고등학교 제34기 졸업 및 임관식

5 제3훈련비행단은 조종장학생 및 항공기능대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비행단 견학행사를 실시했다.



6 제38전투비행전대는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시 기지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지 방호·화학전 종합훈련을 미 8전투비행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7 "다양한 마케팅 기법, 체험 통해 배워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축산물 프랜차이즈 기업 '총각네 야채가게'를 방문, 현장 체험을 실시한 공군 공보장교들



영 피아니스트 서해경 초청 연주회
장소: 제5전술공수비행단 해성관 일시: 2005. 3. 18. 15:00



8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3월 18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해경 씨를 부대로 초청, 장병들을 위한 위문 연주회를 열었다.



9 제17전투비행단 장병 61명은 3월 14일 부대 인근 노인요양원을 방문, 사랑을 전달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등 '사랑의 실버 화이트 데이' 행사를 열었다.



10 부대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친 제19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

11 교육사령부는 새 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합동으로 인근 지방도로와 하천 주변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펼쳤다.





신임 보라매들의 힘찬 비상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

“이제 여러분은 용맹스럽고 사기충천한 보라매가 되어 우리의 하늘을 수호하실 것입니다. 나는 필승공군의 힘찬 기상과 명예를 더욱 높여갈 여러분을 굳게 믿습니다.”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4년 간의 생도생활을 통해 늠름한 청년장교로 탄생한 신임 소위들의 장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같은 기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멋진 퍼레이드. 이어 그들의 제복만큼이나 푸른 하늘에 선배들이 조종하는 전투기들이 하얀 줄무늬를 그리며 하늘로 솟는다. 잠시 후... 4년 간의 엄격한 생도생활을 상징하는 200여개의 흰 예모들이 졸업생들의 함성과 하객들의 환호 속에 하늘 높이

던져 올려진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생도가 아니다. 어엿한 대한민국 공군소위로서 각자의 특기에 따라 공군의 각급 부대에서 조국 영광수호의 임무를 담당할 것이다.



졸업식 이모저모

이날 주목을 끈 것은 졸업생들에게 수여된 군사학사 학위. 이는 '04년 1월 일부 개정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것으로, 금년부터 3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은 공학사나 이학사, 문학사 등 전공에 따른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가 추가돼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됐다. 올해 공사의 졸업식이 3군 사관학교 중 가장 먼저 거행됨에 따라 국내 1호 군사학사들이 공사에서 처음 배출된 셈이다.

졸업식 실황이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전국에, KBS 청주방송국을 통해 청주 지역에 생방송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했다. 아무래도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출입에 제한이 많았던 졸업식 행사. 이번엔 누구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었다. 개인사정으로 행사장에 오지 못한 가족이나 친지, 공군의 멋진 행사를 보고싶어했던 지역 주민들... 그 모두를 위한 공사측의 배려가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전체 수석을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창범 소위는 공부도 잘했지만 행글라이딩 실력도 최고 급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해 대통령배 행글라이딩 대회에 출전해 단체상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고. 전체 수석 소감으로 “부모님과 동기생, 후배들에게 감사한다. 항공우주군 건설에 기여하는 멋진 전투조종사가 되겠다.”는 말을 전했다.

공사 '얼짱', 소위 임관해 태국으로

태국 수탁교육생으로 4년 간의 한국 공사 생활을 마치고 이날 졸업한 다이텡 소위(Traithep Kepsilpa). 그는 생도 생활 내내 큰 키와 수려한 외모로 공사의 '얼짱'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 덕에 3, 4학년 당시 공군사관학교 홍보화보와 달력에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다고.

그러나 그가 태국으로 가져가는 추억 보따리에는 이보다 훨씬 따뜻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한국 생활 내내 부모처럼 따랐던 박종관 씨(49세, 다우산업 대표), 김미경 씨(46세)와의 인연이 바로 그것.

박종관 씨 내외와 다이텡 소위가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1년. 청주에서 사업을 하는 박씨가 태국 위탁생의 한국 후견인을 찾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자원하면서부터. 사관학교 밖에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던 다이텡 소위는 주말이면 으레 박씨의 집을 찾았고, 박씨 내외는 다이텡 소위를 자식처럼 보살폈다. 예비역 공군 장교(사관후보생 75기, 중위 전역)로 다이텡 소위에게는 공군 선배이기도 한 박씨였던 터라, 먼 나라에 홀로 건너와 힘든 생도생활을 하는 다이텡 소위에게 더욱 정이 갈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곧 떠날 다이텡 소위를 위해 태국에 있는 다이텡 소위의 가족들(어머니, 형, 누나, 매형)을 자비로 초청하기도 했다.

“제겐 두 분의 아버지와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



수석 졸업생 전창범 소위



공사 '얼짱', 태국 수탁교육생 다이텡 소위



(왼쪽부터)김상훈·김익규·홍현기 '공군' 소위. 아버지는 육·공·해!

니다.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평소의 씩씩했던 모습과 달리 말끝을 흐리고야 마는 다이텃 소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멋진 나라를 펼치길 기대한다.

아버지들의 제복, 아들들의 제복

이날 육군 장교, 공군 준사관, 해군 부사관의 아들이 세 명이 나란히 임관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상훈 소위, 김익규 소위, 홍현기 소위. 김상훈 소위의 아버지 김선수 육군 중령은 현재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김익규 소위의 아버지 김갑렬 공군 준위는 현재 공군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에서, 그리고 홍현기 소위의 아버지 홍성민 해군 원사는 현재 해군제2함대사령부에서 복무 중이다.

평생을 국가와 군을 위해 몸바쳐온 아버지들. 그들의 자랑스런 제복을 이제 아들들이 입었다. 세 아버지와 세 아들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있길 빈다.

열 세 시간 날아와 “동기들아, 졸업 축하해”

동기들의 졸업과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에서 건너온 美 공군사관학교 3학년 정양운 생도. 입고 있는 美 공사 정복의 반듯한 모습도 도드라지지만, 동기들과 뜨거운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축하를 건네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다.

美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콜로라도 스프링스

(콜로라도州)에서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는 순수한 비행시간만 해도 13시간을 훌쩍 넘긴다. 항공기를 갈아타는 시간, 육로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먼 거리. 鄭생도는 학기 중임에도 열흘 짜리 청원휴가를 내고 자비를 들여 여기까지 왔다. 신입 소위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 특별한 하객에게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鄭생도는 이날 임관한 신입소위들과 같이 '01년 3월 공사 제53기 사관생도로 입교했다. 1학년 재학 중 美 공군사관학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돼 '02년 7월 말 美 공사 1학년으로 입교했다. 'BCT(Basic Cadet Training)' 이라 불리는 美 공사의 가입교 훈련을 거쳤음은 물론이다. 힘들기로 정평이 난 사관학교의 가입교 훈련과 1학년 생활을 두 번씩 겪게 된 셈이다.

鄭생도는 언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학년 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업우수상(Dean's List)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내년 6월 美 공사 졸업과 동시에 한국 공군소위로 임관하는 鄭생도는 동기생들보다 1년 반 여를 늦게 임관하지만 대위 진급은 같이 하게 될 예정.

신임장교 여러분이여, 건승하시라. 우리의 하늘, 그대들의 어깨에 걸려 있다.☺

공군본부 대위 조세영





독도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정연철(공군본부 사무관, 법학박사)

요란스런 관심의 회오리가 지나면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과 우리 정부의 독도 여행 자유화 발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들어온 독도.

이렇게 요란스런 관심의 회오리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롭고 쓸쓸한 이야기가 혹여 자리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최근 독도에 관한 글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독도는 우리 국민들의 눈 속에는 들어와 있지만 마음 속까지는 들어와 있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 시대에 있어 독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킬 독도 여행 자유화 조치

우선 독도는 주변국인 일본으로부터 영유권에 관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영토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독도를 볼 때에는 일본을 비롯한 그 어떤 주변국도 감히 영유권 얘기를 꺼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화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유지하려고만 했었던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한·일간 독도 문제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조선 시대에 실시했던 공도정책(당시 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한 일부 섬 지역이 병역 기피나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도 섬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이었던 역사적 교훈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우리가 그 땅에서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를 전제로 한다. 진정한 실효적 지배는 바로 이러한 전제의 확고한 다지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독도 여행 자유화 조치는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섬에 부여되는 유엔 해양법상의 엄청난 권리

다음은 독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법적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유엔 국제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양에 존재하는 섬은 섬을 기준으로 12해리(1해리는 약 1,852m)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그리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 영역이 겹칠 때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기준은 등거리선, 중간선 등을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 관행

이다.

그런데 과거 우리 정부는 '민간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암초'는 EEZ를 가질 수 없다는 동 협약 제121조 제3항의 규정을 충실하게 지켜 독도를 중심으로 영해만 설정하고, 접속수역이나 EEZ는 설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한·일 어업협정에는 독도를 포함한 일정수역을 중간수역(일본측에선 이를 잠정수역이라 함)으로 설정하여 합의해줌으로써, 접속수역이나 EEZ의 설정 자체를 원천봉쇄시키는 엄청난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일본의 경우 동경으로부터 1,7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 상의 조그마한 섬인 오키노 도리시마(만조시 대형침대 2개 크기로 높이 70cm만 보이는 섬)에 대하여도 200해리의 EEZ를 설정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해양 권리에 대한 일본의 이같은 태도를 감안한다면 최근 불거진 독도문제를 정리하면서 독도 영유권에 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영해, 접속수역, EEZ 등의 문제도 실속있게 확보할 수 있으면 한다.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간의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제적인 사법기관이다.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취급한 여러 건의 영토분쟁 사례가 있는데, 그 중 독도문제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1953년에 내려진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망끼에 및 에크레호(The Minquiers and Ecrehos) 도서 및 암초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그것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측이 제시한 판단 근거는 바로 (1)權原(title)과 (2)決定的 基日(critical date)이었다. 여기서 권원이라 함은 문제의 분쟁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관한 것을 말하고, 결정적 기일이라 함은 권리를 주장하는 양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영토분쟁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의미한다.

영토분쟁 해결에 대한 이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은 재판소 설립 이래 취하고 있는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다.

권원의 문제 대하여 재판소는 수로측량, 조명과 부표의 관리, 수상과 공군상 시찰 등에 의한 권원을 주장한 프랑스의 주장을 배척하고, 형사재판권 행사와 과세처분 등의 증거를 주장한 영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결정적 기일은 분쟁의 결정화가 이루어진 1950년 12월 29일로 하자는 영국과 영·불 연합협정이 체결된 1839년 8월 2일로 하자는 프랑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분쟁이 처음 발생한 1886년과 1888년으로 인정하였다.

문제의 망끼에 및 에크레호 섬은 프랑스 본토로부터의 거리가 영국 본토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이었지만, 재판소는 영국의 주장이 프랑스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영국의 승소로 결론을 지었다.

참고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한·일간에 의견 충돌 혹은 마찰이 있었던 사례를 열거하면

- 1696년 안용복의 도일과 독도(당시는 우산도) 재판
- 1900년 대한제국에 의한 독도 관리에 관한 관보 게재
-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조치
-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과 동년 1월 28일 일본의 외교항의
- 1954년 7월 25일 일본측이 주장한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일본측에 대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성립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가 취하는 결정적 기일에 따라 현재의 실효적 지배행위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아로새겨야 할 독도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칫 소홀히 넘기기 쉬운 위와 같은 문제들도 잘 챙겨지기를 기대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때보다 우리 눈앞으로 다가온 독도.

독도를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한·일의 최근 모습을 보면서 진정 독도에서 자라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조차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깊이 아로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맺는다.☺



주영복 前 공군참모총장 별세

주영복 제13대 공군참모총장 별세

지난 3월 14일, 제13대 공군참모총장과 제22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주영복(周永福) 예비역 대장이 일산 국립 암센터에서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하여 사찰에 봉안할 예정이고, 장례는 17일 공군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故인의 주요 약력

1950년 공군 사관후보생 8기로 임관한 故인은 한국전쟁 당시 F-51 전투기로 총 77회의 출격기록을 수립하는 등, 한국군의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故인은 공군사관학교장, 제10전투비행단장, 작전사령관 등 공군의 주요 보직을 거쳐 제13대 공군참모총장(1974. 8.~1979. 4.)을 역임하였다.

참모총장 재임시에는 O-2A 전술항공 통제 항공기, A-37 공격기, F-4E 전투기를 도입하여 공군의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했으며, 제83통신전자정비창과 제18전투비행단 및 제17전투비행단을

창설하여 균형있는 항공전력체계를 마련했다.

故인은 1979년 12월에 22대 국방부장관에 취임하였고, 42대 내무부장관도 역임하였으며, 충무무공훈장(1951), 대통령수장(1952, 1954), UN중군기장(1954), 美공로훈장(1973, 1975), 보국훈장 통일장(1974), 청조 근정훈장(1985) 등 다수의 훈포상을 수여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봉자 여사와 장남 환우, 차남 용식, 장녀 금순, 차녀 애순, 삼녀 비자 등 2남 3녀가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卍



무사고 5,000일의 '대박'을 터뜨리다!



지난 3월 9일, 공군 제1방공포병여단 111-3 포대(이하 3포대) 연병장에 걸린 '무사고 기원의 박'이 3포대 장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터트려졌다. '경축 무사고 5,000일'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플래카드가 공중에 펼쳐지는 가운데, 3포대 장병들은 앞으로도 부대에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5,000일 동안 사고가 없었어요!

3포대는 지난 '91년 효율적인 방공작전 수행을 위해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한 이래, 체계적인 병력관리와 안전교육으로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내지 않으며 무사고 5,000일의 대기록을 달성

했다. 이는 최근 군내 사고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단연 모범이 되는 기록이다.

이 기록은 장거리를 이동하며 수시로 유도탄 실사격 등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공포 부대의 특성상 매우 드문 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방공포병 부대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이다. 더욱이 격오지에 위치하여 겨울철 체감온도가 최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때에 따라 평균 풍속이

시속 20노트를 육박하는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결과라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완벽한 안전관리!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듯 무사고 5,000일의 대기록도 3포대의 끊임없는 안전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3포대는 구타, 가혹행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간부와 병사가 아이디어 회의를 갖고, 단계별 면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구타 예방벨을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높고 험악한 도로를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운전병들을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운전병 대기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한편, 운행 스케줄도 운전병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했다.

이처럼 철저한 안전관리 덕분에 3포대는 '91년도 집중호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부대가 고립되는 등의 위기를 맞아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 부대원이 '선배들이 계승해온 대기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결의를 함께 다지며 가일층 안전관리에 힘쓰게 되었고, 부대원끼리 서로 보살피 주고 함께 고민하는 부대전통을 세울 수 있었다.

부대장 박용규 소령은 5,000일을 넘어 10,000일, 20,000일 무사고를 달성해 부대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날 행사에서 다짐했다. ⊕

원고정리 편집실



“임무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이만 부대 1진, 5개월 간의 완벽한 임무수행 후 귀환

“항상 그대와 함께”

다이만 부대 1진 장병들이 돌아왔다. “항상 그대와 함께”라는 뜻의 아랍어 ‘다이만’이란 별칭에 걸맞게 다이만 부대 1진 장병들은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의 자이툰 부대와 기타 이라크 주둔 동맹군의 인원 및 물자 수송임무에 항상 함께 해 오다 지난 3월 10일 귀환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다.

5개월만에 돌아온 자랑스러운 다이만 1진 용사들

무려 22시간 20분이 걸린 귀국이였다. 3월 10일 오후 9시, 제5전술비행단(이하 5전비) 주기장의 킁킁한 어둠 속에서 육중한 형체의 C-130 수

송기가 점점 그 모습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정비병의 붉은 유도등 신호를 따라 활주로에 내려앉은 수송기 주위로 대기하던 5전비의 동료 조종사들이 모여들었고, 위무도 당당하게 수송기에서 내린 다이만 부대 1진 장병들은 5전비 선후배 조종사들과 서로 얼싸안으며 환한 웃음을 나눴다. 꽃샘추위의 찬바람도, 긴 비행 뒤의 피로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기장은 복귀한 장병들의 우렁찬 신고목소리로 가득 찼다.

다이만 부대는 지난해 8월 31일, 단장 강대희 준장(52세)을 비롯한 정예 조종사와 정비사 등 150여명의 인원과 C-130(허큘리스) 수송기 4대





로 창설됐다. 다이만 부대는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에 주둔하며 자이툰 부대와 이라크 주둔 동맹국의 인원·물자 수송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여회의 성공적인 임무수행, 0.04%의 완벽한 정비지원

850km 떨어진 이라크 북부 아르빌 공항까지 200회가 넘는 공수임무를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 온 다이만 부대. 이는 평균 비행 기록 2,000시간이 넘는 노련한 다이만 부대 조종사들이 이륙 시 급상승·급선회 등의 전술비행을 실시해 적 저항군의 대공위협을 성공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던 결과다.

0.04%의 결함률 밖에 보이지 않은 수준 높은 항공정비지원도 다이만 부대의 자랑이다. 시속 30노트가 넘는 모래바람과 최고기온 50도가 넘는 폭염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소의 결함률을 기록한 다이만 부대의 항공정비지원반은 동맹군으로부터 술한 찬사를 받았다.

다이만 부대의 우수성은 특히 작년 연말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 시 공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증명된 바 있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수행을 전용기가 아닌 경호에 가장 취약한 수송기로 이뤄낸 것은 우리 군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귀국 장병 중 선임자인 권관준 소령은 “다이만 부대의 활약에 대하여 쿠웨이트 현지인들과 주둔 동맹군의 칭찬이 자자하다”며, “이번 다이만 부대의 파병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6월까지 단계적으로 2진 파병장병과 교체될 예정

지난 5개월 간의 임무, 기지건물도 없던 상태의 다이만 부대를 지금까지처럼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항공수송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온 다이만 부대 1진 장병들. 귀환한 장병들은 각종 건강검진을 마친 뒤 도착 다음날인 3월 11일, 5진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귀국 환영식을 가졌다.

다이만 부대 1진은 6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나누어 귀환할 예정이며, 다이만 부대 2진 140여명은 6월까지 단계적으로 출국하여 1진 장병들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원고정리 편집실

영원한 '곰신'

소설가 노은의 공군사랑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훈련소 앞에서 작별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장면이고, 한번쯤은 겪게 되는 모습들. 품에 안겨 우는 여자친구들도 있고, 부모님 앞에 큰 절을 올리는 예비 훈련병들도 보였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은 뒤돌아 서서 늠름하게 뛰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였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군에서의 생활이 편해졌다

다 하지만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안타깝고 걱정스런 심

정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20여권의 장편소설과 수필집을

내신 베스트 셀러 작가 노은 씨. 지난 8월 외아들을

공군에 입대시키고 그 후 '좋은 생각' 게시판에 '이

병엄마의 편지' 라는 글을 연재하고 계신 노은 씨

는 자신을 작가가 아닌 '이병엄마로서 군복무 중

인 노은' 이라고 소개하였다.



남편과 아들을 공군에 보내고

직접 찾아뵈는 노은 씨의 책은 깔끔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잘 꾸며져 있었고, 특히 집안 곳곳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눈길을 끌었다. 젊은 시절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삼으셨던 남편 신성철 씨(그도 공군장교 출신이다) 덕분이라는데 가족의 추억과 사랑이 가득

문어나는 사진들은 집 분위기를 더욱 다사롭게 만들고 있었다. 남편 신성철 씨가 중위로 복무하던 시절 결혼을 하여 공군의 아내로 생활하고,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장성한 아들을 입대시켜 공군의 어머니로 생활하고 계신 노은 씨. 그래서인지 공군에 대해선 남다른 정을 느낀다고 한다. 사실,

아들에게 공군을 지원하도록 권유한 것도 어머니인 노은 씨라고.

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한 군복무

마음으로나마 아들과 함께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는 노은 씨.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다 같으리라... 노은 씨의 글에는 많은 '리플' 들이 달린다. 군대에 아들을 보내고 기다리는 어머니들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속에는 고참 어머니가 신병 어머니를

위로하고 신병 어머니가 고참 어머니를 부러워하는 등 어머니들만의 또 다른 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어떠한 계기로 인터넷에 글을 연재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했다.

“아들 재문이가 자대배치를 받고 들어가는 길에 진주 터미널에서 기차 시간이 남았다며 집에 전화를 했어요. 나주로 배치를 받았으며 건강히 잘 다녀오겠노라며 엄마도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데 그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흐르더라고요. 언젠가 터미널에서 공중전화를 걸려고 길게 줄서있는 사병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전화를 걸던 재문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조금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으면하고 기다리던 엄마 마음 때문이었는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재문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 저녁 컴퓨터에 앉아서 쪽 써내려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물론 익명으로요... (웃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좋은 생각』에서 연재 제의를 받게 되었죠. 매일 업데이트되는 글들은 하루하루 저만의 군생활(?)과 틈틈이 적어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군복무,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어가기를”

얼마 전 노은 작가는 『공군 뉴스레터』와의 동행으로 아들 부대를 방문했다. 부대의 배려로 평소 면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없었던 아들의 내무실과 부대시설들을 직접 돌아볼 수 있었다는 노은 씨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전하며 가슴 한 켠에 남았던 마음을 전하였다. 다른 병사의 어머니들도 계신데 혼자서만 아들 부대를 견학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교단에 섰던 시절 제자들 같은 병사들의 능글한 모습에 느꼈던 몽글하고 벅찬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노은씨는 지난 25년간 교단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다). 그러한 아들과도 같고 제자와도 같은 공군장병

들에게 노은 씨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의 말씀을 남겨주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 군대에서의 생활이 외롭게 느껴질 때도 많겠지만 당신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군복무 중인 아들들과 늘 함께 훈련을 받고 아프고 힘들고,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아버지들, 여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생활이 힘들 때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힘든 오늘도 지나가면 다 추억이 되고 배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에만 연연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들은 자신이 있는 곳의 시설이 좋고 나쁘다던지, 주변에 새로운 인간관계가 힘들다던지 하는 것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겠지요. 흔히들 인생을 향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려운 파도를 넘고 바람을 이기며 항해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그 바다가 흐르는대로 바람이 이끄는대로 표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 그러한 표류는 마음의 여유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더 힘찬 항해를 위한 숨고르기의 시간을 주어 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객원기자 오 경 수



“아들 재문이와 함께”

F-15K, 세상 속으로

F-15K 1호기 출고식(Roll-Out)



위풍당당 F-15K

2005년 3월 16일 오후 1시 30분, 미 세인트루이스(St. Louis)에 소재한 보잉社. 한국에서는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4시 30분이다. 돌연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현존 최강 전투기의 위용이 담긴 동영상이 스크린을 채우며, 장내를 가득 메운 내빈들의 시선을 낚아챈다. 이어 보잉사의 F-15K 사업 총괄 스티브 윙클러(Steve Winkler)의 환영사가, 그리고 이 전투기가 태어나기까지의 장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와 미합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짐 알바(Jim Albaugh) 보잉 통합방위시스템 대표의 식사가 이어진다.

이윽고, 모든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바라보는 가운데, 전면 중앙의 대형 장막이 대한민국의 이한호 공군참모총장, 허드슨 美공군성 차관보, 짐 알바 대표에 의해 걷어진다. 찬란한 조명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 길이 19.45m, 폭 13.05m, 높이 5.7m의 매끄러운 회색빛 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장차 대한민국 영공을 든든히 수호할 최강의 전투기 F-15K 1호기가 세상에 그 공식적인 첫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1988년 소요 제기된 지 17년 만에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가 돌아옴(Roll-Out)되는 순간이다. 선명한 태극 마크와 함께.

현존 최강의 전투기, F-15K

무려 10.4톤의 외부 탑재물을 장착할 수 있는 이 전투기의 행동반경은 1,800Km에 이른다. 연료의 재주입 없이 630Km 떨어진 지역까지 비행해 세 시간을 정찰하고 귀환할 수도 있다.

SLAM-ER, Harpoon 등 장거리 공대지, 공대해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천후 정밀유도 무기인 JDAM(합동직격탄,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투발 능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최첨단 전자장비들이 이 전투기의 능력을 배가시켜준다. 신형 ADCP(Advanced Display Core Processor)를 사용해 미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F-15E보다 10배 이상 빠른 프로세싱을 자랑한다. 레이시온(Raytheon)社가 자랑하는 최신의 AN/APG-63(v)1 레이더, 3세대 전방감시 적외선 장비(FLIR),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등은 F-15K가 세상의 어떤 전투기들보다도 멀리서, 그리고 빨리 목표물을 포착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해준다. 최신의 지형추적 시스템은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저고도 고속비행을 가능케 한다. ALR-56C(v)1 조기경보 수신기와 ALQ-135M 전자전 재머는 F-15K를 적의 위협으로부터 철통같이 지켜준다.

조종석의 7색 컬러 LCD, 두 개의 평면 전방 컨트롤 패널, 넓은 시계(視界)와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HUD(Head Up Display)는 조종사가 항공기 상황과 전장 상황을 적보다 한 발 앞서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헬멧장착 시현장비(JHMCS, Joint Helmet Mounted Cueing System)는 목표 포착 정보,



F-15K, 서울에어쇼 때 첫 공개

오는 10월 서울에어쇼에 가면 F-15K를 직접 볼 수 있다. 공군은 10월 18일(화)부터 23일(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에어쇼 2005』 행사 때 F-15K 초도 인수기 두 대를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기로 했다. 행사 기간 중 한 대는 공대공·공대지 무장 장착 상태로 지상 전시되며, 다른 한 대는 축하비행을 선보이게 된다.

비행 속도, 고도 등의 데이터를 바이저에 투사해 줌으로써 조종사가 주변의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F-15K의 데이터링크 시스템은 목표물 데이터 등 주요 전장 정보를 다른 임무 항공기들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게 해준다. 아군의 전력들이 무선 교신이 아닌 데이터 자체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게 해주는 이 시스템은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한미 연합 작전능력을 신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F-15K는 2002년 4월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의 대상기종으로 결정됐다. 최신예 F-15K 40대를 확보하기 위해 2009년까지 약 42억 2,800만 달러가 투자된다. 항공기 인수는 올 10월 두 대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원고정리 편집실

전략형 공군 향한 의미 있는 큰 걸음

“최고의 다목적 전투기인 F-15K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F-15K는 장착 한미 공군간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향상시킬 것이며, 변화하는 위협의 양상 속에서도 견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제막 세레모니 직후 이어진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의 축사 중 한 부분이다. 그렇다. F-15K는 우리의 공군력 발전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F-15K 초도기의 출고는 우리 공군이 전술적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진입 포인트다. 프로펠러기인 F-51 Mustang을 주력기로 쓰다가 제트기인 F-86 Sabre를 도입해 대망의 '제트(jet) 시대'를 연 1955년의 비약을 상기시켜 준다. 전략형 공군이 되려면 광역·장거리 전장감시체계, 첨단 지휘통제체계, 정밀공격 전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연동해야 한다. F-15K는 우리 공군 정밀공격 전력체계의 맨 앞에 설 것이다.



▲▼ 출고식 행사에서 공개된 F-15K의 위용





F-15K 출고, 앞으로의 과제

예비역 공군소장 이진학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F-15K

3월 17일(한국시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F-15K 출고식이 있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되는 F-15K는 북한 및 불특정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전력으로써 협력적 자주국방과 연계한 미래형 첨단 핵심 전력체계다. 최첨단의 F-15K 도입을 통해 한국 공군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F-15K의 우수한 능력

F-15K는 13t 가량의 무기 장착이 가능하며 공대지 정밀 폭탄 및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모두를 장착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급유 없이 1,800km 이상의 전투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첨단 전투레이더·적외선 추적 장비를 탑재, 전자전 상황에서도 100km 밖의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링크 체계를 통한 실시간 정보 송수신 체계를 이용하여 명령·정보를 모든 항공기에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F-15K 도입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F-15K 도입으로 우리 공군은 한반도 전 영역에 대한 전략표적 공격과 응징 보복작전 수행 능

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최소의 폭격으로 최대의 공격 효과'를 거두는 정밀 공격을 통해 264억 달러라는 최소 비용만을 사용(걸프전쟁시 760억 달러)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러나 F-15K 도입만으로는 공군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공중급유기(KC-X)와 정밀유도무기 등과 결합될 때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E-X :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 능력

현재 공군에서 운영 중인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저고도 감시 능력이 제한되는 반면, E-X는 자체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중에서 운영되므로 저고도 원거리 감시능력과 생존성이 우수하고 독자적인 통제능력을 갖고 있다. E-X의 확보는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 능력을 갖추므로써 F-15K, KC-X와 통합 운영시 독도·광구·해상로 보호 작전능력을 갖는 등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KC-X : 주변국에 대한 전쟁억제력

불특정 위협은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전쟁억제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있다. 자연히 전투기의 작전반경과 체공 시간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이라크전쟁에서 공중급유기를 이용, 항공 작전반경을 늘렸던 것처럼 주변국에 대한 전쟁역 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밀유도 무기 : 미래전의 핵심 타격 체계

정밀유도 무기는 현대전 작전수행 체계인 탐지(sensor)→결심(C4I)→타격(shooter) 중 타격 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이 사용한 항공탄 중 7% 정도가 정밀유도 무기인데 비해, 이라크전에서는 68% 이상의 정밀유도 무기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라크전에서 사용된 합동직격탄(JDAM)과 바람수정 확산탄(CBU-105/B)은 기존의 공중 공격전술을 바꾸어놓을 획기적

무장으로 평가된다. 정밀유도 무기를 보유했을 때 우리의 F-15K는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의 길

공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8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소요 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국방재원 부족으로 E-X 사업은 세 차례나 연기되었고, KC-X 사업은 2004년 착수에서 2010년 이후로 순연되었다. 또한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은 2005년 예산에서 삭제되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가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국방비 부족 문제는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력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를 한다면 자주국방의 길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새 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공군 항공기



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부터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런 나의 마음을 눈치 채기라도 한 듯, 81창 도장반 반장 이상기 서기관님께서 “A-37은 저고도 공격기에 걸맞는 얼룩 무늬 도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해 주셨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기의 도장에 대해 알아볼까나.

항공기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항공기 도장’이란 쉽게 말하자면, 항공기의 목적에 따라 그에 알맞은 무늬나 색채, 광택 등을 입히는 작업이다. 이러한 도장은 단순히 페인트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비(항공기를 완전히 분리하여 정비하는 최상위의 정비단계)’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비장에 들어온 항공기는 먼저 각 부분별로 분리되어 페인트 리무버로 도장을 깨끗이 제거한 후 정비를 한다. 분리된 부품 중 고장난 부품의 교환·수리가 끝나고 다시 조립까지 완벽하게 되면 비로소 도장작업이 시작된다. 도장작업의 첫 단계는 세척. 정비과정에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기름으로 표면을 닦아낸다. 때를 다 벗겨낸 후 말끔

월간공군 객원기자로서 첫 번째 취재를 위해 난생 처음 군부대에 방문하던 날. 새 봄의 시작을 알리듯 아침부터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셨다. 처음과 시작이라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항공기 도장 작업’이라는 아직은 조금 생소한 주제를 취재하기 위해 ‘공군 군수사령부 제 81항공정비창(이하 군수사 81창)’을 찾았다. 항공기에 대해 문외한인 기자에게 월간공군의 편집장교와 군수사에서 나온 안내장교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객원기자라는 명분 하에 멋진 항공기들을 구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정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어 영광이었다.

A-37의 봄맞이 준비

넓은 정비장에 들어서자마자 한창 도장이 진행되고 있는 A-37의 모습이 보였다. 처음 보는 공격기의 웅장한 모습에 놀란 것도 잠시. A-37이 어떤 도장을 하게 될지, 도대체 왜 도장을 해



A-37 공격기의 상도장 작업. 저공에서 활동하는 공격기이므로 얼룩무늬 도장을 한다.



A-37 공격기 하도장 작업



"태극마크도 우리가 직접 그려낼죠."

해진 항공기에 마스킹 작업을 꼼꼼히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마스킹은 캐노피 등 도장을 하지 않는 곳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종이나 비닐 등을 씌우는 작업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페인팅 작업에 들어갈 차례. 페인트는 총 두 번에 걸쳐 항공기 표면에 칠해진다. 먼저 바탕에 칠하는 하도장은 페인트와 금속판과의 접착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연두색의 하도장이 마르면 표면에 상도장을 칠하는데, 상도장은 그 목적에 따라 색채와 무늬가 다양하다. 이렇게 도장작업을 마친 항공기는 3~4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거쳐 완전히 새 비행기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도장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공기를 도장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도장의 가장 큰 목적은 항공기 표면에 도막을 형성하여 기후, 습기, 벌레 등의 침투를 막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공을 날아다니다 보면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표면이 쉽게 부식하게 되는데, 도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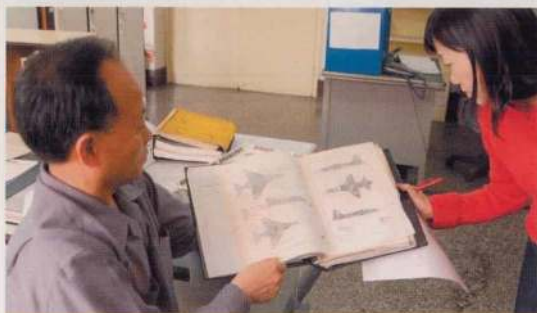
통해 이러한 외부환경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항공기 표면의 무늬나 색깔은 항공기가 적에게 잘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위장'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한 가지! 도장이 '표시' 기능을 하는 설명서 구실까지 한다는 것이다. 항공기 표면 여기저기에 써 있는 문자나 기호 등은 (그냥 멋있으라고 적어 넣은 게 아니다!) 조종사나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부 재질 및 내부 기능, 주의사항 등을 알려 준다고 한다. 도장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그야말로 도장만 잘 봐도 항공기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도장에 관한 모든 것은 'TO(Technical Order)' 라는 일종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TO에는 무늬의 형태부터 색채 비율, 심지어는



도장을 완료한 F-5 전투기
고공에서 활동하는 전투기이므로 외부도장이 화색이다.



“이게 바로 도장작업에 대한 ‘TO(Technical Order)’입니다.”



작업을 끝낸 F-5 전투기를 쓰다듬고 있는 도장반 반장이상기 서기관

페인트의 두께까지 수치화되어 있다고 하니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도장작업에 도전장도 내밀지 못할 것 같았다.

작업장의 주인은 도장용 페인트

도장작업은 고가의 정밀장비인 항공기에 관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야 하는 세심한 작업이다 보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작업에 쓰이는 페인트는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환경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공기 도장의 최적 온도는 24~27도, 습도는 60~80%로 이들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페인트가 잘 칠해지지 않아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작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즉, 사람을 위한 작업 환경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장용 페인트를 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작업장에서는 독한 페인트 냄새와 먼지 때문에 보호의,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가 필수이다. 기자는 잠시 동안 작업장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냄새로 정신이 없을 정도였는데, 묵묵히 도장작업에 열중하는 정비사들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건강에 대해 염려가 되었다. 그래도 요즘은 환풍장치 등 시설이 많이 개선되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장작업의 원동력은 장인정신!

취재 중에도 도장작업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 정비사들 덕분에 군수사 81창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정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경력이 15~20년 이상된 베테랑들이셨다. 항공기를 만져보기만 해도 도장에 사용된 페인트의 종류나 도장 두께를 알 수 있다고 하니 과연 이 분야에서 일인자임에 틀림없었다. 32년째 정비를 지키고 계신 이 서기관님께서서는 “도장 작업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페인트 작업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숙련을 요하는 작업이죠.”라며 도장작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셨다. 그래서일까. 말끔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항공기를 쓰다듬는 서기관님의 미소에서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새봄을 맞아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항공기가 상공으로 날아오를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

객원기자 백예니



말끔하게 새 옷을 갈아입은 A-37 공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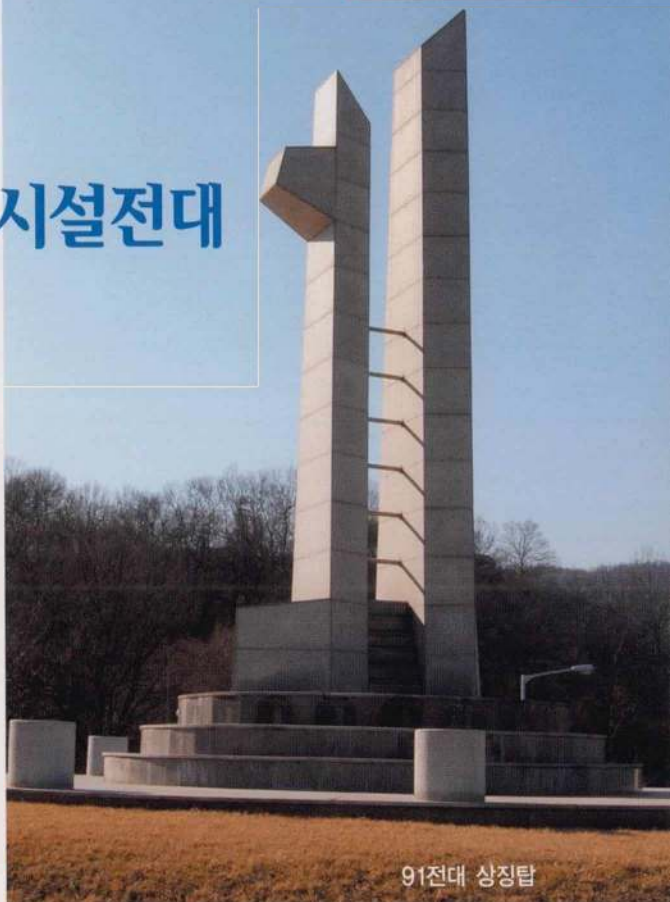
공군을 만드는 사람들



제91항공시설전대

어린 시절, 기자가 즐겨했던 놀이가 있었으니 바로 '레고'가 그것. 바닥을 깔고, 도로를 내고 계다가 적소(適所)에 사람이며, 나무, 건물과 자동차를 배치하는 재미는 또 어찌나 쏠쏠했는지. 오죽 좋아했으면 레고 조각을 먹어버려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었다.

오랜만에 이런 기자의 천방지축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제91항공시설전대>. 이름만 들어서 잘 모르겠다면 전신인 <제91기지건설전대>를 떠올려보자. 자, 이제 감이 오는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내는 그들. 바로 오늘, 그 옛날 어린 기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레고보다 훨씬 더 멋진 '그들'이 온대!



91전대 상징탑

새로운 이름으로

1969년 창설되어 35년간 공군의 비약적 발전에 중추역할을 해온 제91기지건설전대가 지난 3월 16일, 제91항공시설전대(이하 91전대)로 이름을 새롭게 했다. 항공작전시설 보강작업이나 야전공병 및 시설 특수임무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현 임무나 기능에 적합한 부대명칭으로 조정된 것(물론 기존의 기지건설 임무도 유지된다). 각종 주거시설이나 행정·교육시설 등의 설계 및 공사관리, 공군기지의 활주로 관리 및 유

91전대 정비반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장비들. 91전대에서는 각종 건설 중장비들의 창정비가 이루어진다.



WILL DO
CAN DO

91전대 설계과의 신조 "Will Do, Can Do"

91전대가 하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앞서 언급한 임무만 해도 버거울 것 같은 모든 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이곳만의 노하우는 아마도 '심 없는 노력'일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전 비행단의 건축물을 진단하는 일이나 유류저장시설의 안전을 진단하는 것, 각 비행단의 건설기재 창정비 및 장비제공 업무 등..

지, 시설물 안전진단과 대규모 토공사 및 재해복구, 공병장비의 창·야전 정비와 시설특기 신병 및 동원예비군 교육 훈련까지.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이 많은 임무를 아우르는 새로운 부대명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전국구 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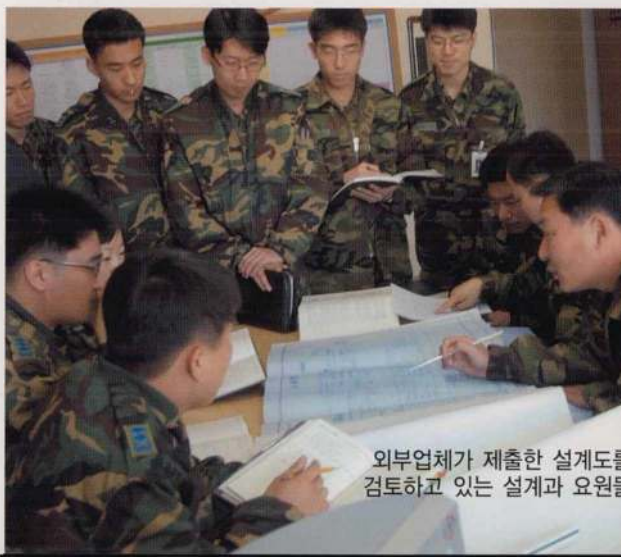
1973년 사천 비행장 건설을 시작으로 신기지 건설과 기존 기지 개발 및 관리에 주력해온 91전대. 사실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비행단은 단 하나도 없을 만큼 91전대는 전국구 부대다.

그중에서도 단연 전국을 주름잡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공사과. "가자! 현장으로" 공사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이를 대변한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뛰자는 뜻입니다. 대구, 광주, 서울 할 것 없이 우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수시로 드나들죠."라는 공사과장 김정석 중령. 임무의 특성상 건설업체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다보니 애로사항도 많다. 건설업체는 아무래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사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공사과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

물론 공사과라고 해서 장병들이 직접 벽돌을 지고 나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현장에 파견되어 감독관으로서 공사를 관리, 조정, 통제하는 것이 그들의 일. 비행단 시설건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들이야말로 전국구 장병으로 손색이 없다.

91전대의 브레인

책상 앞에 있기를 거부하고 현장을 중시하는 공사과와는 달리, 책상 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이들이 있으니, 바로 설계과가 그 주인공.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다이아몬드(◆) 천지이다. 여기가 바로 노다지? 빙고! 그러나 아쉽게도 광물이 아닌, 말하자면 장교 노다지인 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설계과의 업무 특성상 전원 장교와 군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이곳은 건설 사업 전단계인 설계업무를 담당한다. "자체 설계 업무도 담당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감독관으로서 관리를 하게 되죠. 몇 번이고 사용자들과 만나 진행상태를 체크합니다."라는 조대호 설계과장. 이렇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탓에 전기·토목·기계·건축 전공자로 이루어진 설계과의 장교들은 전역 후 취업 시 이곳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단다. "여기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스카웃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한 장교의 귀띔.



외부업체가 제출한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는 설계과 요원들



"항공기 바퀴자국, 깨끗이 지워드립니다"
활주로 리무빙 작업



91전대 역사기념실

활주로도 우리 손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물론 가정이다) 적군이 우리 공군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일까? 정답은, 단연 활주로. 두터운 이글루 속에 지켜지고 있는(게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항공기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데 없어서는 안될(그리고 개방된) 활주로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 따라서 전시, 활주로를 파괴하려는 적의 작전에 대비해 공군은 체계적인 피해 복구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91전대가 있다. 특히, 이·착륙시의 속력이 시속 300Km에 달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고른 활주로 상태는 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때문에 이를 위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평상시 훈련과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활주로 상태를 최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은 평소에도 계속되는데, 전 비행단의 활주로 포장평가, 전투기 이·착륙시 미끄럼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한 그루빙 작업, 활주로 포장면과 전투기 타이어의 마찰로 인해 생긴 타이어의 고무자국 제거를 위한 리무빙 작업, 활주로 안전의 일등 공신 표지선 도장 작업, 활주로 반사율을 낮춰 적 항공기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위장도장 작업 등이 그것이다. 짝 뺀 활주로는 멋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있노라면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다. 지난 여름 활주로에서 있다가 불과 10여분 만에 못 건디고 뛰어나왔던 일이나, 시린 겨울 황량한 활주로에서 칼바람에 맞

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할 '뺨' 한 기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일년 내내 활주로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일지는 자명한 일.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새벽업무를 마치고 활주로 저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 피곤이 싹 가신다."는 활주로 리무버팀 박상은 중사. 그들이 활주로 위에서 흘리는 구슬땀이 있기에 내일도 우리는 안전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작지만 큰 부대

91전대가 하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앞서 언급한 임무만 해도 버거울 것 같은 모든 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이곳만의 노하우는 아마도 '쉽 없는 노력'일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전 비행단의 건축물을 진단하는 일이나 유류저장시설의 안전을 진단하는 것, 각 비행단의 건설기재 창정비 및 장비제공 업무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들. 그들의 노력을 반증하듯 역사기념실에는 그동안의 업무내용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다. 그간 취재시 각 비행단에서 봤던 낯익은 건물부터 서울에서 지나다니며 자주 봐온 공군회관까지 91전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공군 시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수많은 공군부대의 터를 닦고, 기지를 건설하고, 안전한 시설 유지를 위해 지금도 전국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작지만 가장 큰 부대가 아닐까. ㉔

객원기자 이지연



소직경 폭탄 SDB (Small Diameter Bomb)

2001년 9월, 미 공군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 두 방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새로운 폭탄 개발계획을 시작한다. 이 계획에는 일련의 공중 투하 시험들을 포함한 2년 간의 평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록히드 마틴의 제안은 GBU-41로, 보잉의 제안은 GBU-39로 명명된다.

이후 2년 간의 연구개발·시험평가가 실시되었고, 마침내 2003년 8월 28일, 미 공군은 SDB 사업 대상으로 보잉을 선정하였다. 2003년 계약은 대략 1억 8천8백만 달러였고, 앞으로 미국 내 수요만으로도 25억 달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계약에서는 고정 표적 공격용 SDB를, 그리고 2006년에 시작할 2차 사업에서는 이동 표적 공격능력이 추가된 SDB가 개발될 전망이다.

개발 과정

보잉은 SDB에 자동 조종 장치의 통제 아래 작동하는 2개의 고정 날개와 3개의 조종 핀을 달았으며, 항공기의 데이터 모델을 통해 GPS 위성자료를 포함한 각종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18km 이상 거리에서 투하된 첫 번째 시험은 표적 중심에서 1.7m 떨어진 곳에 명중했다. 두 번째는 약 13km 날아 표적 중심에서 1.05m 떨어진 곳에 명중했다. 운동 에너지로 최대한 전환하기 위해 높은 고도에서 투하된 세 번째 시험은

19km의 거리를 비행하여, 표적 중심에서 1.09m 떨어진 곳에 명중했다. 세 번 모두 표적 반경 2m 이내에 명중함으로써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개발될 SDB는 같은 정확도를 가지면 서도 적의 전자전 공격에 더 강하고, 더 가볍고 (680g 미만), 더 가격이 싼 유도장치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개선된 소형 사거리-연장 킷(SSB-RX : Small Smart Bomb-Range EXtension)을 설치할 경우, 사거리는 65km에 이를 것이다).

무기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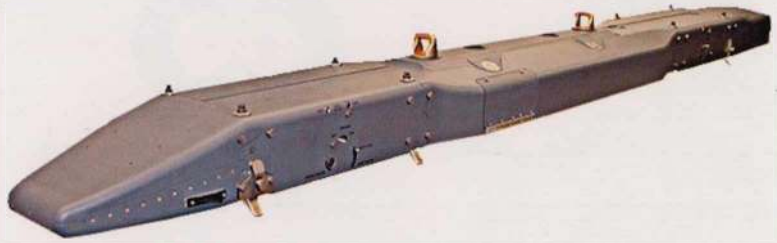
SDB는 전투기, 폭격기들 또는 무인전투기에서 발사할 계획인 250lb(113kg)급 관성 유도 '고성능' 폭탄이다. GBU-39/B SDB는 길이 1.8m와 최대 직경 19cm로서 F-117, F-22와 F-35 같은 스텔스 항공기의 내부 적재실에 수용될 만큼 충분히 작으며, 40마일 이상(64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지고, 강철로 강화된 콘크리트를 3피트 이상(1m) 관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기 특성에 힘입어 SDB는 지휘통제 통신 병커에서부터 방공 장비/시설, 석유·기름·윤활유 저장소, 대포 및 대공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표적에 사용 가능해질 것이다.

운용 상태

2003년 2월 25일, 보잉은 플로리다의 Eglin 공군 기지에서 F-15E를 이용한 첫 번째 SDB 투하 시험을 하였다. 내부 적재실을 사용하는 스텔스 항공기인 F-35(JSF : Joint Strike Fighter)

SDB carriage



전투기에 대한 내부 적재 시험은 오스트레일리아 공군과 합동으로 F-111 시험 항공기를 통해 수행하였다. 사거리-연장 날개 킷을 장착한 3회의 시험을 포함한 27회의 투하 시험과 10회의 유도 비행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5개의 하중 슬레드 시험, 4개의 둔감 무장 시험, 2개의 탄두 시험, 2개의 실제 발사 시험, 11번의 고정 운송 시험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과 표적에 대한 SDB의 성능을 검증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보잉은 대략 24,000개의 SDB와 2,000대의 운송체들을 만들 예정이며 첫 번째 납품은 200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미 공군은 SDB에 대한 '최초 적용 항공기'로 F-15E Strike Eagle을 선정했고, 스텔스 항공기인 F/A-22에 대한 적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후 최종적으로는 F-35와 무인전투기에서도 SDB를 운용할 계획이다. ⚡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앞으로 개발될 SDB는 같은 정확도를 가지면서도 적의 전자전 공격에 더 강하고, 더 가볍고(680g 미만), 더 가격이 싼 유도장치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개선된 소형 사거리-연장 킷(SSB-RX : Small Smart Bomb-Range EXTension)을 설치할 경우, 사거리는 65km에 이를 것이다).



SDB의 개념도.
2개의 고정날개와 3개의 조종핀이 달려있다.



정찰위성 세계

몇 년 전에 개봉된 『에너미 라인스(Behind Enemy Lines)』라는 영화를 보면 보스니아 내전 중에 미해군 정찰기 조종사가 임무 도중 반군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고 가까스로 비상탈출하여 적지를 헤매는 내용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소속 함대의 지휘관은 조종사의 생사 및 위치를 찾기 위해 정찰위성을 동원한다. 잠시 후 조종사가 화면에 잡히고 몇 분간 그의 움직임을 촬영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저궤도(100~1,500km)의 정찰위성으로는 궤도상에서 지속적으로 회전을 해야 하므로 그렇게 장시간 한 곳을 촬영할 수 없고 정지궤도 위성으로 촬영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고궤도(36,000km)의 정지위성이 그와 같은 해상도를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장면은 아직은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찰위성

정찰위성은 이렇게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주 전력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다. 지구상 필요한 지역의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주 임무인 정찰위성은 지구 100~1,500km 상공의 저궤도를 원형이나 타원형 궤도로 회전하면서 정찰임무를 수행한다. 많은 정찰위성이 고도 약 680km의 궤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센서 기술

초창기에는 정찰위성이 광학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 필름을 회수하기 위해 위성이 저고도로 내려왔을 때 필름이 담긴 용기를 사출하는 원시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영상을 광학 필름이 아닌 CCD를 이용하여 전기신호로 바꾸어 저장하는 디지털 방식을 도입, 실시간 지상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찰위성은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원리의 고성능 EO(Electro-Optical : 전자광학) 센서와 야간 촬영이 가능한 IR(Infrared : 적외선) 센서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레이더의 반사파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 : 합성개구면레이더) 센서를 탑재할 수도 있다.

정찰위성의 능력

그렇다면 실제로 정찰위성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공개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군사 정찰위성 KH(KeyHole)시리즈 위성이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최신형인 KH-12은 최고 해상도가 대략 10~15cm로 알려져 있다.

또한 KH-12 위성은 대량의 연료를 탑재함으로써 긴 위성수명과 기동능력을 특징으로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 기동능력을 통해 KH-12 위성은 위성궤도를 지구상의 일정한 고도를 회전하는 원궤도에서 지표면의 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워졌다가 반대편에서는 가장 멀어지는 형태의 타원궤도로 변환할 수 있다. 즉, 원하

는 지점에서 저고도로 하강,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위성은 기동을 위해 위성 자체의 연료를 소모하며 이는 위성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위성의 수명이 단축되더라도 기동능력을 사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민간의 지구관측 위성과 비교했을 때 군용 정찰위성이 갖는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레이더 영상을 획득하는 SAR 위성

KeyHole 위성시리즈는 전자광학(EO)과 적외선(IR)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상 이 양호한 주간과 야간까지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름이 낀다든지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는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은 전천후로 영상획득이 가능하도록 '레이더 영상(SAR) 센서'를 탑재한 라크로스(Lacrosse)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SAR 위성은 영상 판독이 까다로워서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판독요원이 필요하고 해상도(1.5m 이하)가 전자광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군사적으로 이용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다.

각국의 정찰위성

미국은 앞서 언급한 KH위성과 Lacrosse 위성이 개발되기 이전인 60년대엔 이들 위성의 초기모델인 Corona 위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정찰위성으로는 COSMOS계열이 있는데 해상도는 약 50cm까지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유럽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공동개발한 Helios 위성이 있고 중국과 일본도 각기 해상도 1m 이하급의 군사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우주무기지원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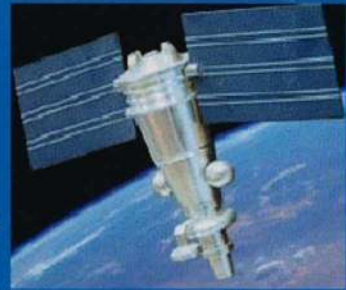


러시아의 RESURS 위성 ▶



◀ 미국의 KeyHole-12

▼ 미국의 라크로스 위성



러시아의 COSMOS 위성 ▶



◀ 일본의 ALOS 위성



유럽의 HELIOS 위성 ▶

4월의 공군 역사

부활호 명명식(1954)

1953년 10월 공군 기술학교 정비교육대 이원복 소령 주도하에 설계제작된 2인승 다목적 경비행기 “부활호(復活號)”는 6·25전쟁 후 한국공군의 부족한 항공기 보충 및 기술학교 장병들의 설계제작 실습을 위해 폐기된 항공기 부품을 회수하여 제작한 최초의 국산 항공기이다.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화된 조국을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부활(復活)이라는 친필 휘호를 하사하였으며, 1954년 4월 3일 김해기지에서 함태영 부통령 임석하에 명명식을 거행하였다.



F-16 항공기 최초도입(1986)

공군 현대화 및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도입한 F-16 항공기 1, 2호기가 미국에서 출고식을 마치고 1986년 4월 12일 군산기지에 도착하자, 공군은 김인기 참모총장 임석하에 'F-16 항공기 최초도입 환영식'을 거행하였다.

공군은 F-16 항공기를 도입함으로써 전쟁시 공중우세 확보, 야간 및 전천후 작전능력 보강, 북한의 MiG-23 항공기에 대한 대응전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 항공기를 “필승보라매 (Fighting Falcon)”라 명명하였다. 🇰🇷



4. 1. L-19 항공기 도입(1951)
4. 2. 신축 공군회관 개관(2003)
4. 3. 국산제작 항공기 부활호(復活號) 명명식(1954)
4. 10. 교육사령부 창설(1973)
4. 11. 걸프전 참전 한국공군수송단 비마부대(飛馬部隊) 임무종료 후 해체(1991)
4. 12. F-16 항공기 최초도입(1986)
4. 13. RF-86 항공기 도입(1958)
4. 16. 중앙기록보존소 창설(2004)
4. 18. 청남대 비행금지구역(P-112) 해체(2003)
4. 19. HS-748 항공기 도입(1974)
4. 25. KT-1B 인도네시아 수출 1호기 출하(2003)
4. 29. C-46 항공기 인수식(1955)
4. 30. F-5A/B 항공기 인수식(1965)
제2사관학교 해체(1984)



달맞이 고개 입구의
춘원 이광수 시비



해월정

도시의 끝에서 만나는 또 다른 부산

달맞이 고개와 송정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보면 바다 끝자락에 나지막하게 솟아있는 언덕을 볼 수 있다. 북적거리는 해운대 신시가지와 부산의 망망대해 사이에 걸쳐진 이 길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하여 와우산이라 불리기도 하고, 길이 15번 이상 굽어진다고 해서 15곡도라고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달맞이 고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월출 광경이 유명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월출뿐만 아니라 달맞이 고개의 다른 매력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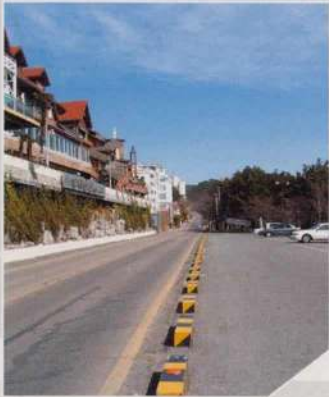
발길을 잡는 고갯길

부산과 송정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달맞이 고개는 부산을 떠나는 이들의 심금을 다시 한 번 울리는 '공명'의 힘을 갖고 있다.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서방의 옷자락을 잡는 색시 같다고 할까. 부산을 넘어 동해 쪽으로 나서려고 하면, 달맞이 고개는 광안리와 해운대를 잇는 부산의 해

안과 드넓게 펼쳐진 부산 바다를 살포시 보여준다. 그러면 아무리 무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발길을 멈추고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두 번의 장관, 해월정

해월정은 달맞이 고개에서 부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달맞이길 중턱에 위치한 해월정은 예로부터 대한팔경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월출의 장관과 일출의 경이로움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래서 신년 벽두만 되면 해월정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룬다. 또한, 해월정은 아주 옛날 사냥꾼 총각과 나물캐는 처녀가 애절한 사랑 끝에 보름달에 빌어 부부가 되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하여, 지금도 신혼 여행객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는 등 소원을 비는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일찍이 춘원 이광수는 해월정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달맞이 고갯길



추리문학관



송정 해수욕장

달맞이 고개를 배경으로 한 식당과 찻집도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한 운치 있는 카페들이 많아 연인들이 즐겨 찾기도 한다. 찻길도 잘 닦여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또 하나의 명소, 추리문학관

달맞이 고개 끝자락에는 '여명의 눈동자' 소설가로 잘 알려진 김성중 선생이 건립한 추리문학관이 위치하고 있다. 카페와 찻집 사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추리문학관은 달맞이 고개의 대표적인 볼거리 중 하나이다. 추리문학관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추리문학 전문 도서관으로, 2만여권에 달하는 추리소설책을 보유하고 있다.

추리문학관은 도서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직접 음악회도 열고, 다른 전시회도 여는 등 달맞이 고개의 운치에 맞는 다양한 행사들을 선보이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리문학관이 곳곳이 버터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유로운 해변, 송정 해수욕장

달맞이 고개를 넘어 계속 가게 되면,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과 견줄 수 있는 송정 해수욕장이 나온다. 송정은 항구도시에 속한 해수욕장 가운데서는 가장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는 곳으로, 송정천에서 유입된 모래와 백합 등의 조개껍질이 풍화작용을 거쳐 이루어진 양질의 모래는 송정 해수욕장의 또다른 매력이기도 하다.

부산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진 송정 해수욕장은 2km 백사장과 맑은 물, 입구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해수욕장으로서의 운치를 더해 준다. 또한 동북쪽 끝에는 담수와 바위가 많아 해안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갯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곳에는 유명한 횃집들이 많다. 탁 트인 동해를 바라보며 바닷가를 거닐 수 있어 데이트 장소로 좋고, 민박시설이 잘 되어 있어 MT 장소로도 유명하다. 송정 바닷가 뒤쪽으로 위치한 광어골에는 달맞이 고개처럼 운치 있는 음식점들과 카페도 많다. 도심 해수욕장치고는 비교적 인파가 덜해 하루 나들이 코스로도 적당하다.



수상법당(水上法堂), 해동 용궁사

송정의 명물은 당연히 해동 용궁사일 것이다. '바다도 좋아하고 청산도 좋다거늘 / 바다와 청산이 하나 곳에 피단말가 / 하물며 청풍명월 있으니 여기곳 선경인가 하노라'는 시인의 노래처럼 용궁사는 바다와 산이 섞인 기묘한 위치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절의 이름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산 속 깊은 곳에 파리를 틀고 있는 대부분의 절들과는 달리, 용궁사는 바다와 맞닿아 있어 매우 독특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그런지 용궁사는 신자들도 많지만 바다에 떠있는 절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로 늘 북적댄다. 수상법당(水上法堂)은 용궁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또한, 용궁사는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음 성지의 한 곳이기도 하다.

용궁사는 관세음보살이 바닷가 외로운 곳에 상주하며 용을 타고 회현했다는 재미있는 탄생 설화를 갖고 있다. 1376년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용대사가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930년대 초 통도사 운강(雲綱) 화상이 중창하였으며, 용궁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74년 정암 스님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용궁사에는 배경뿐 아니라 재미있는 건축물도 많이 만날 수 있다. 해수관음대불은 바닷가 바로 앞에서 있는 큰 불상인데, 단일 석재 불상으로서는 한국 최대의 석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다 앞에서 있는 이 불상은 마치 하나의 수신(水神) 같다는 느낌을 준다. 한계단 오를 때마다 번뇌가 소멸되고 정각을 이룬다는 백팔계단은 양 옆으로 석등이 늘어서 있어 마치 용궁으로 들어가는 길목 같다는 느낌을 준다. 이 밖에도 해맞이바위, 방생터, 굴법당 등 해동 용궁사에는 다른 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가 녹아 있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 시작하여 송정으로 꺾이는 이 구간은 부산에서 가장 볼거리 많은 곳이기도 하면서,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잘 배합된 곳이기도 하다. 특히 부산의 바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움은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다. 가끔은 부산의 도심에서 벗어나 바다가 주는 자태에 한껏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재경공보실 중위 박승엽

지고도 이기는 법



구성 : 김영실
그림 : 김영은

춘추전국시대, 조나라의 인상여(蔣相女)는 환관(宦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과 인품으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출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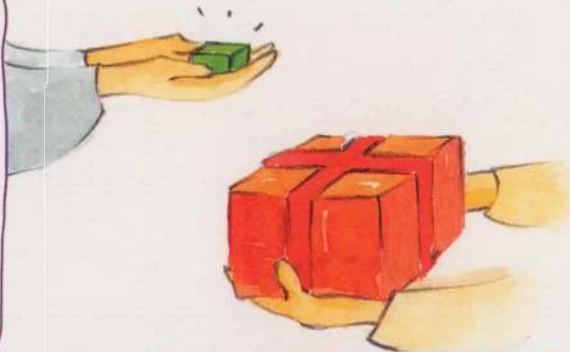
특히, 대장군 염파(廉頗)는 '어찌 내시의 자손을 재상으로 받든단 말인가! 언젠가는 반드시 모욕을 주리라'며 인상여를 깔보았고, 그 사실을 안 인상여는 염파를 피해 다녔습니다.

궁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를 피하다니는 인상여에게 부하들은, "재상께서는 엄파 장군보다 높은 위치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두려워 하며 피하기만 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상여는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엄파가 아니라, 우리를 노리는 진나라 뿐이오. 그곳 자존심 때문에 재상과 대장군이 서로 싸운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소?"라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파는 매우 부끄러워 하며, 가시채찍을 등에 지고 인상여를 찾아가 호해를 청했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나라를 떠날치는 튼튼한 양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려'와 '양보'를 '지는 것'으로 여겨, 사소한 일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상여는小而 주고大而 얻었고, 지고도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이나 유혹 등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나 안타까움이 존재하더라도 그 판결의 절차나 내용에 대하여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이며, 그 훼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절차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3심제로 다투게 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권위를 지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3권분립(三權分立)

3권분립이라는 말은 자주 듣는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으로, 현재 국가 권력 구성 원리 중 핵심 원리이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해서 기술함으로써 국가권력구조 구성에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입법부의 가장 큰 명제는 지난 3월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의제이다. 행정부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그 기조로 한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법부의 독립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 또한 흔히 듣는 말이며, 교과서에도 자주 오르내렸던 말이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와 이 말이 주는 무게와 깊이를 아는 사람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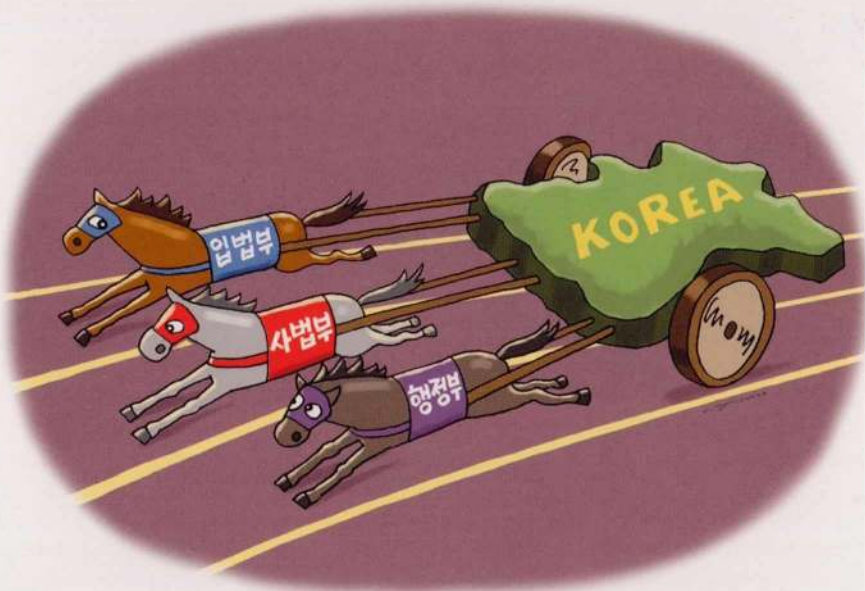
사법부의 독립은 먼저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어떤 권력이나 간섭,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을 하게 되며, 이를 보장하

기 위하여 엄정한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판결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판사직을 상실하게 될 위험을 없앴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다. 법관 들끼리 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끔 함으로써 인적, 감정적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현재 판사들은 사법시험을 언제 합격하였느냐에 따라 매겨지는 연수원 기수로 서열이 정해지고 있으나, 이는 단지 예절과 의전의 기준이 될 뿐 판결을 함에 있어 참고가 되지 않는다. 즉, 판사는 같은 판사일 뿐이지, 나이나 연수원 기수에 따라 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다. 선배로서 그 경험과 노하우는 존중하지만 일단 자신이 맡은 직무에서의 사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간에 이를 주위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오직 3심 제도를 통하여만 결정을 바꿀 수 있다.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으로 보장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당사자가 승복하기 쉽고, 우리 사회의 권위가 바로 서는 것이다. 그러나 안 좋은 점도 있다.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견제 장치가 드물다는 점이다. 판사도 사람인 이상 인적(人的)으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유리하게 또는 개인적인 경험을 앞세워 객관적이지 못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선배나 후배들이 옆에서 지적하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약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여야 할까.

사법부의 독립이 더 중요해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문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 보장'이다. 수사기관은 어떻게든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에 대하여 '1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무고한 9명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9명의 무고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1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것이 낫다'라는 격언이 있다. 즉, 인권 보장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이나 유혹 등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나 안타까움이 존재하더라도 그 판결의 절차나 내용에 대하여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이며, 그 훼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절차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3심제로 다투게 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권위를 지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면 행정과 입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게 되며 이런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더 많아진다. Ⓣ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지귀연

고혈압의 생활요법

질병 중에는 TV와 영화의 영향으로 한 가지 이미지로 굳어 버린 것들이 있다. 가령 백혈병은 최근의 상당한 치료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여자 주인공들이 번번이 이 병으로 요절하는 바람에 절망적인 병으로 인식되고 있고, 결핵하면 바닷가로 요양온 도시 소녀가(얼굴이 창백한) 시골에 사는 소년과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기억하게 된다. 한편, 고혈압에 대해 떠올리는 장면은 갑자기 흥분했을 때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모습이다. 이 때 문인지 사람들은 고혈압이라면 으레 뒷목이 빠근해져야 한다고 믿거나, 그런 증상이 없다면 고혈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고혈압은 실제로 30세 이상 남성 3명 중 한 명 꼴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병이며, 특별한 증상이 없다. 게다가 고혈압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신장병, 말초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고혈압, 위험성에 비해 경각심이 부족

고혈압의 특징은 아주 흔하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아는 비율이 낮으며, 아는 사람들도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남성은 1/3이, 여성은 1/4 정도에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비율은 50대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상승하지만 실제 치료하는 비율은 그 중 1/4에 불과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절되고 있는 사람은 7% 정도에 머무는

실정이다.

2003년도에 개정된 고혈압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혈압 분류	혈압(mmHg)
정상	수축기 혈압 119 이하 그리고 이완기 혈압 79 이하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 혈압 120~139 또는 이완기 혈압 80~89
제1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 140~159 또는 이완기 혈압 90~99
제2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100 이상

염분 섭취를 줄여라

최근 의료계에서는 예전의 '성인병'이라는 용어 대신 '생활 습관병'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고혈압과 당뇨, 비만, 고지혈증이 포함되는데 그릇된 생활습관이 병을 발생시키는 데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두 가지 이상의 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생활습관 개선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고혈압의 생활 요법으로 먼저 식염 제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15gm 정도되는데, 이를 하루 6gm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소금은 특히 김치와 찌개, 국물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축기 혈압을 평균 2~8mmHg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

체중감량과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체중감량도 혈압 강하에 큰 도움을 준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고혈압 환자의 경우 10kg의 체중을 줄이면 수축기 혈압을 5~20mmHg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 체중감량은 고혈압 예방 외에도 당뇨병 예방, 고지혈증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자신의 체중을(kg) 자신의 키(m)의 제곱으로 나누면 체질량 지수가 나오는데(가령 몸무게 60kg에 키가 173cm이면 $60/1.732=20$) 25 이상은 과체중, 3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하여,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가 되도록 감량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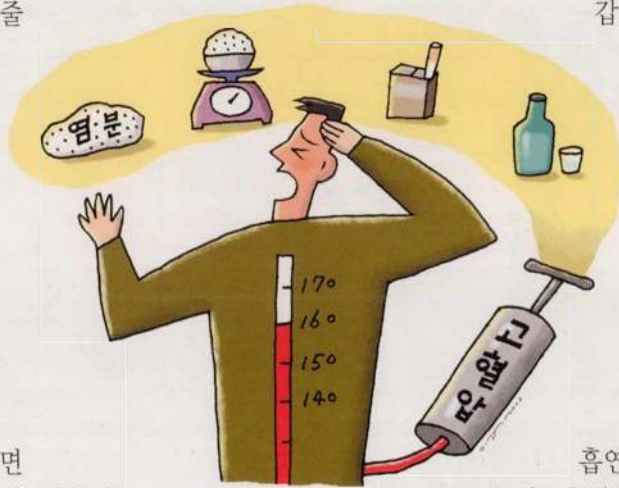
다음으로 DASH 식사법이 있는데 이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포화지방산 및 총 지방을 제한하며 칼륨과 칼슘의 섭취를 권장하는 식이요법이다. 이를 통해서 수축기 혈압을 8~14mmHg 정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염분 섭취를 동시에 줄이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또, 규칙적인 운동, 가령 매일 30분 이상씩 속보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4~9mmHg 정도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운동 종류의 선택은 자신이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단, 고령이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운동처방을 받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술, 담배를 끊어라

술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나 장기적으

로는 혈압을 올리므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알코올 양으로 남자는 30cc(소주 3잔, 맥주 1병, 50도 위스키 1잔 정도) 정도가 심장을 보호하는 적정량이며(2~4mmHg의 강압효과) 이를 초과할 경우 예방효과는 없어지고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 과음하던 사람이 갑자기 금주하게 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수일 후에는 강압효과가 나타난다.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흡연자의 발병률이 비흡연자보다 2~3배 정도 높다. 흡연을 하게 되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흡수된 니코틴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혈압상승 이외에도 흡연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당뇨를 악화시키며 고혈압 약의 효과도 감소시키므로 고혈압 환자는 적극적으로 금연해야 한다(시중에서 판매되는 니코틴 껌이나 패치는 그 양이 낮아 혈압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혈압 약 하나의 효과가 수축기 혈압을 7~13mmHg 정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때 고혈압에서 생활요법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고혈압 전단계라면 먼저 생활 요법을, 고혈압 환자라면 약물 요법과 생활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혈압 환자들이 늘 하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철저한 생활 요법을 시행하면 떨쳐버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이철민



제19전투비행단 국궁동아리

중원 궁도회

장난감이 많지 않았던 시절, 산과 들에 널려있는 대나무나 나뭇가지는 아주 좋은 장난감 도구였다. 어느 정도 나이드신 분들은 대나무를 휘어서 만든 활과 싸리나무 화살을 가지고 들판을 뛰어다녔던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어린아이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최신식 장난감들을 들고서 길거리에서 전쟁놀이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의 무예였던 국궁은 역사책이나 TV 등을 통해서만 아련히 떠올려질 뿐, 실제로 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활을 잘 다루기로 유명했다. 옛 조상들이 만든 활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여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성과 사거리 면에서도 우리 것을 따라올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지금도 저변이 넓지는 않지만 대한궁도협회를 중심으로 국궁인구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국궁의 보급과 교육, 개량 등 국궁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한 동아리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 국궁 동아리를 창설하고 국궁의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보급대대 박경용 원사. 그가 국궁을 접하게 된 동기는 군인으로서 선조 무인들이 심신을 연마했던 국궁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국궁장에 다니다 국궁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부대에 국궁동아리를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된다.

“집중력 향상은 물론, 동료들과의 협동, 단결심 고취 등… 우리 공군장병들에게 딱 맞는 스포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국궁을 전파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땅히 단련할 장소가 없어서 창고지

역 인근에 과녁을 세워 놓고 혼자 연습을 했는데 그 모습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국궁 동아리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탄생, 중원 국궁장

박 원사와 함께 어느새 열성적인 국궁인이 되어버린 동아리 회원들. 동아리 이름을 정하고, 부대에 동아리 결성을 보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순식간에 끝내버리더니, 급기야 부대내에 정식 궁도장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부지선정, 안전성 검토 등 몇 가지 난항에도 불구하고, 단장님을 비롯한 부대원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궁도장 건립계획은 현실적인 사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먼저 국궁장 부지가 선정되었고,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중장비 기술자들까지 투입, 두 달여 동안에 걸친 터담이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되었다. 동아리원들도 휴일마다 모여 물러로 바닥을 다지고, 보도블록을 깔아 사대를 만드는 등 맘과 정성을 기울였다.

긴 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중원 국궁장' 이라고 새겨진 현판을 입구에 걸었을 때, 동아리 회원 모두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중원 궁도회, 사대에 우뚝 서다!

게다가 궁도장 개장식과 함께 충주시 생활체육 궁도대회까지 개최, 지역 궁도인들과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지니 동아리 회원들의 사기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기운 때문인지 지난



2004년, 동아리가 결성된 지 1년도 안되어 세 명의 회원이 1단 승단의 영예를 누렸으며, 지역 국궁인들과 함께 출전한 도민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으로써 자부심이 한껏 고취되었다.

동아리 회원 전태산 상병은 "신병 때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활을 내다보니 사격술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매순 중 1시라도 관중이 되면, 그 간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것 같다"며 전역 후에도 국궁을 계속하리라는 의지를 밝혔다.

허리에 정성스레 궁대를 두른 후 사대에 서서, 과녁을 주시하며 활시위를 당긴다. 활 위에 얹힌 화살 하나가 시원스럽게 손가락을 스치듯 빠져 나가는가 싶더니, 눈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탕' 하는 소리가 가슴까지 파고든다.

도민체전,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승단심사 응시 등 바쁜 일정을 짜놓고 열심히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산 속 깊은 곳에 과녁을 세워 두고 홀로 정신수양을 하는 옛 무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예의 범절과 인내심을 습득할 수 있어 신세대 장병들이 수련하기에 더 없이 좋은 무예인 국궁이 널리 알려져 많은 장병들이 익힐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

제19전투비향단 대위(진) 조 요 진

※ 본문 중 국궁 용어 설명

- 시 : 화살 1개
- 순 : 사람마다 화살 다섯 대씩을 쏘는 한차례
- 관중 : 과녁에 명중함
- 궁대 : 활집, 궁의



4

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대영박물관 한국전] 디오니소스(그리스)



[대영박물관 한국전] 무릎을 꿇은 람세스 4세(이집트)

대영박물관 한국전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이며,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진귀한 유물 7백만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대영박물관이 '세계문명, 살아있는 신화 <대영박물관 한국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영박물관이 개관 250주년을 기념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3-2004 일본 4대 도시 순회전'에 이은 대영박물관의 두 번째 해외 나들이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 일본 전시 때보다 60점 많은 330여점의 유물을 공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 구성될 <고대 이집트관>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미라와 람세스 4세의 석상 등이 전시되어 신비에 싸인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고대 그리스·로마관>을 통해서서는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헤라클레스 등 그리스·로마 신화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아시아관>에 전시될 한국 유물 4점은 현재 대영박물관 한국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고려청자 2점과 조선시대의 초상화 2점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전시는 4월~7월 서울 전시에 이어 7월~10월 부산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4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입장료 : 성인 15,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7,000원
문의 : 02-518-3638 (www.bmkorea.or.kr)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도자예술과 도자산업, 도자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세계 유일의 도자비엔날레로서 지난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의 행사를 개최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도예계를 이끌어가는 국제도자행사의 주최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지난 1, 2회 행사에 각각 600만명과 400만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전 국민적 수준의 문화·예술행사로 성장했다.

『문화를 담는 도자』를 테마로 한 이번 도자비엔날레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도예 작가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도자 분야 학술·이론적



연구 발표가 이루어지며,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도자기 전시와 판매,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들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도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다양한 특별전들이 개최되는데, 그릇으로서의 도자가 건축으로, 풍경으로, 광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과 공공의 개념을 담아낸 야외전시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밝고 이색적인 감동을 전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직접 흙을 밟고 만지는 '흙 체험', '도자 빗기와 굽기' 등 다양한 도자 체험 행사들도 실시된다.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천세계도자센터, 광주조선관요박물관, 여주세계생활도자관에서
 입장료 : 일반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
 군인 3,000원(단기하사 이하)
 문의 : 031-631-6512 (www.wocef.com)

미술 체험전시 「터치, 터치」

미술 전시회라고 하면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가 대부분. 하지만 이번 「터치, 터치」전은 아이들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전시이다.

정식명칭 <다중지능을 통한 미술 체험전시 「터치, 터치」전>은 관람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설명적인 전시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만 5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어린이,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전시는 문화의 세기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현대미술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미술에 대한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장에서 제공하는 짧은 교육을 통해 부모 혹은 동반한 어른이 직접 아이들에게 작품을 설명하여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 가족이 미술을 주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연극, 미술, 미술사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강사의 인솔로, 하루 22회의 투어를 제공한다. 체험 위주의 전시장은 투어를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작품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후 전시장 내에서 자율 관람을 실시한다.

동물원, 놀이동산도 좋지만... 자, 이제 한 번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미술관을 찾아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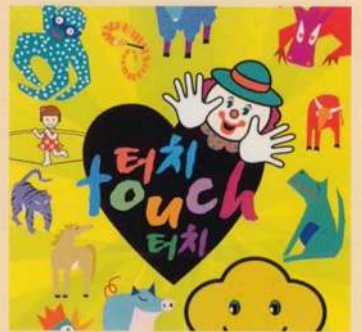
객원기자 지인홍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야간공연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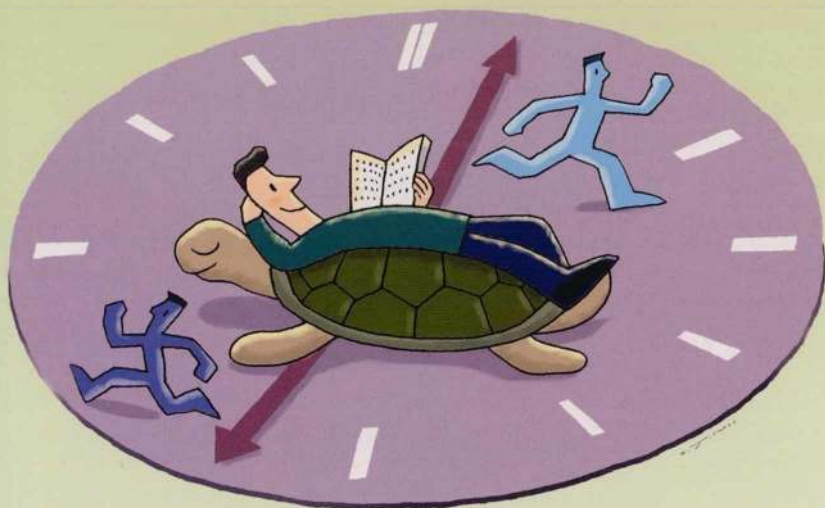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도자기 제작체험



4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광화문갤러리)에서
 입장료 : 8,000원(어린이 1인, 동반성인 1인이 포함된 금액)
 문의 : 02-399-1151~4 (www.touchtouch.co.kr)

느림



유독 급한 성격의 나는,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빨리, 빨리'를 입에 달고 살아왔고 그래서 조금만 늦어지면 불안해하고, 상대방에게 '빨리'를 강요하며 투덜거려 왔다. 조금 천천히, 조금 느리게 살아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을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느림과 뒤처짐을 이음동의어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거, 아줌마! 빨리 좀 하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몇인데...”

“누구는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요? 보험 처리라는 게 한두 마디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아주머니는 짐짓 미안한 목소리로 아저씨의 말을 받았지만, 실은 신경질적인 아저씨의 말투 때문인지 말끝이 살짝 올라갔다.

그러나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짧은 몇 마디 이후에도 10여분의 시간이 더 흘렀고, 넉넉하게 시간을 맞춰 나왔던 나 역시도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번호표에는 아직 내 앞에 섰던 예의 그 아저씨가 딱하니 버티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그 아저씨의 일 처리가 끝난 후이나 내 차례가 올 터인데, 결국 내 차례가 오기에는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으로 어림셈을 했

을 때 최소 10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험사에서의 일 처리를 포기하고 지금 출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계획되어진 약속 시간에 맞춰 가기에는 빠듯한 시간. 이대로 더 기다려서 일을 처리하고 간다면 아마도 택시의 힘을 빌려야 할 터였다.

근 20초 간격으로 시계를 쳐다보며 머리는 이런저런 계산으로 복잡해졌고, 앞에서 유독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아주머니는 조금씩 원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급기야 기다리는 이들은 이렇게 많은데 담당 직원은 왜 단 한 명 뿐이야! 저 빈 옆자리는 대체 뭐지? 그냥 멀뚱하니 쳐다보기만 하는 다른 직원들은 대체 뭐람... 식으로 보험사 직원들을 탓하며 혼자 툭툭거리고 있을 즈음, 결국 아주머니

는 몇 개의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끝내 일의 끝을 보지 못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 동안, 나가는 이 없이 들어오는 이들만 있던 대기실은 제법 붐볐지만, 나는 이미 그들을 염두에 둘 처지가 아니었다. 20초 간격으로 쳐다보던 시계는 어느덧 15초 간격으로 당겨졌고, 더 있을 것이냐, 포기하고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다.

아주머니가 자리를 뜰과 동시에 아저씨는 창구로 걸어갔고, 아저씨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아 일을 끝내고 자리를 떴다.

서류 확인만 간단히 마치면 되었던 나의 일도 금새 끝이 났고, 건물을 빠져나가자마자 택시를 잡아타지만, 제 아무리 빠른 택시라 하여도 이미 약속시간까지는 닿을 수 없는 처지였다. 어쩔 수 없었다.

“저, 오늘 뵙기로 한 함은선 작가입니다. 죄송해요. 10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다행히도 저도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듯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택시 안에서 내내 발을 동동 구르던 나는 그 제서야 숨을 고르며 봄이 오는 여의도를 찬찬히 구경할 수 있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나는, 별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곳에 자리를 잡고선 커피 한잔을 시켰고, 며칠 전에 사 놓고 아직 첫 장조차 읽지 못한 책을 꺼내 들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꽤 흥미를 일으키는 타이틀의 책은 저자의 부탁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읽으라고? 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천천히 읽으라는 것이지? 그리고 천천히 읽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워 이렇게 저자의 말에까지 적혀져 있는 것일까? 다소 의아했지만, 책을 읽다보면 이유를 알게되겠지 싶었다.

그런데 첫 장, 두 장을 넘길 때와는 달리 어느덧 책장을 넘기는 속도에는 가속도가 붙었고, 급기야 글을 읽는 중간 즈음에는 소제목을 잊어버려 앞 장을 뒤적이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렇다! 지금의 상황을 예견이나 했다는 듯이 저자가 부탁의 메시지로 남겼던 그것, ‘천천히’는 지금 내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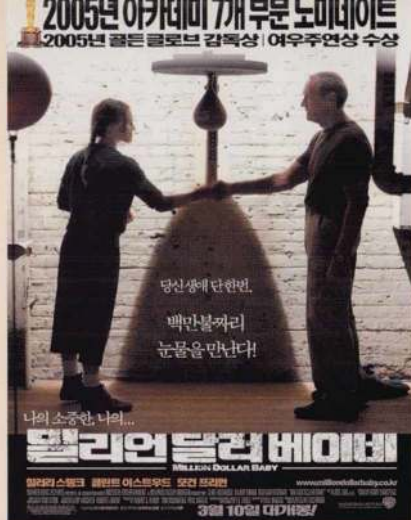
유독 급한 성격의 나는,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빨리, 빨리’를 입에 달고 살아왔고 그래서 조금만 늦어지면 불안해하고, 상대방에게 ‘빨리’를 강요하며 투덜거려 왔다. 조금 천천히, 조금 느리게 살아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을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느림과 뒤쳐짐을 이음동의어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느림과 뒤쳐짐이 같은 의미일까? 초고속을 외치는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 것일까? 느림은 진정 불편하기만 한 것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가... ㉠

방송작가 함은선

밀리언 달러 베이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제작비를 구하러 다닐 때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오랜 세월 복싱 코치로 활동한 제리 보이드의 자전적 소설을 각색한 멋진 시나리오도 소용없었다. 권투 영화는 한물간 데다 한물간 권투 코치 이야기는 더 한물간 소재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다. 지루한 설득 끝에 겨우 돈을 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패밀리'가 합류했다. 20년 지기 톰 스텐이 촬영을 맡았다. 30년 지기 조엘 콕스가 편집을 책임졌다. 89세 프로덕션 디자이너 헨리 범스테드는 어쩌면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작품으로 기꺼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골랐다. 음악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본인이 직접 작곡하기로 했다.

늙은 트레이너와 늦깎이 복서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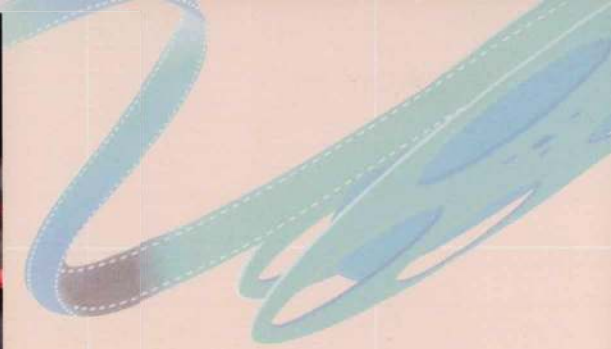
“나는 내가 유일하게 싸우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건 스크랩(모건 프리먼)이 진술하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그 남자는 60년대에 트레이닝과 선수 관리를 시작했고, 여전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그로부터 사라졌다. 잘 훈련시킨 선수들이 떠나갔고, 유일한 혈육으로부터 외면당했다. 되돌아오는 것은 늙어가는 육신과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건 어쩌면 그의 돌이키고 싶은 과거를 극복할 마지막 희망인지 모른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복싱 트레이너 프랭키(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찾아온 마지막 희망은 31살의 신참 복서 매기(힐러리 스웁크)다. 권투를 시작하겠다는 매기에게 프랭키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손님들이 먹다 남긴 스테이크로 주린 배를 채우면서 밤마다 체육관을 찾아와 땀흘리는 매기에게 꿈을 꾸지 말라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프랭키가 보기에 그녀는 너무 나이가 많다. 그러나 그녀는 부정한다. 결국 매기의 열정에 감복한 프랭키가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매기는 기어이 최고의 권투선수가 되는 꿈을 이룬다. 그러나 마침내 챔피언이 되는 생애 최고의 순간, 매기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 그때부터 영화는 논란의 결말을 향해 치달는다. 마지막 문턱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시 운명의 비극이다.

작품에 내재된 숙명론적 세계관

이 영화는 프랭키에 관한 영화다. 동시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자신의 영화이기도 하다. 프랭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발견한 '밀리언 달러 베이비' 매기로부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한다. 23년 전, 스크랩의 시력과 인생을 앗아갔던 경기의 악몽과 자신을 철저히 거부하는 딸의 증오로부터 구원받고자 한다. 그에게 매기는 23년 전의 스크랩이고, 하나뿐인 혈육이다. 매기는 '돌이킴'의 존재다. 그러나 인생에 돌이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비극은 어둠 속에 흐르는 강물처럼 되돌아온다. 그것이 숙명이다.



〈용서받지 못한 자〉, 〈퍼펙트 월드〉, 〈미드나잇 가든〉, 〈스페이스 카우보이〉 등 자신의 감독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복수와 원죄의 숙명론적 세계관을 피력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또 다른 삶의 경지로 다가간다. 그건 단지 〈용서받지 못한 자〉 혹은 〈퍼펙트 월드〉에서 보여줬던 노인의 성찰만은 아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자신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본다. 프랭키는 매기를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기로부터 자신의 삶을 배운다. 그 배움은 고통스럽다. 반복되는 실패가 가르쳐주는 것은 세계의 숙명론이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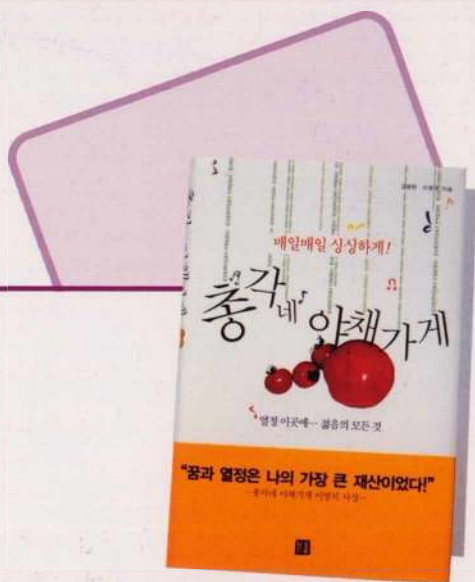
이스트우드는 항상 자신의 육체와 얼굴에 대해 나르시스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화를 본다는 것은 항상 독특한 체험이었다. 유명처럼 유명한 카메라가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화면 가득 담아내는 순간, 우리는 문득 영화의 외부를 인식한다. 그 외부에는 배우이자 감독인 이스트우드가 서 있다. 50년대 장르 영화에서 출발해 60년대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로 최고의 웨스턴 영웅에 오르고 70년대 〈더티 해리〉 시리즈에서 냉혹한 아메리칸 마초 형사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가 어느 순간 할리우드 유일의 ‘완전 작가’ 경지에 올랐다. 이런 이력으로 인해 그가 직접 출연하고 감독한 영화에서 그 자신의 이미지는 영화 내내 관객들의 부름을 받는다. 하지만 후반부로 흘러갈수록 영화에서의 그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건 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다 물 속으로 사라져간 나르시

스의 죽음을 연상시킨다. 나르시스처럼 프랭키도 사라진다. 그리고 물 속에 핀 수선화처럼 프랭키도 자신이 찾은 안식처에서 희미한 형상을 드러낸다. 이 순간 프랭키는 마치 유명처럼 보인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이스트우드가 새로운 경지에 진입했음을 선언하는 영화다. 그건 단순히 이 영화가 감정을 자극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과 태도로 전화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전 작품(테비작에서부터 전작 〈미스틱 리버〉까지)을 지배했던 복수의 세계에 더 이상 강박되지 않는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는 여전히 삶의 비극이 존재하지만, 그 비극에 저항하는 복수의 피비린내는 진동하지 않는다. 스크랩의 진술처럼 그는 이제 ‘유일하게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트우드의 영화적 세계는 잔혹하고 냉정하다. 그건 마치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 흑인 복서의 깊게 패인 얼굴의 상처 속으로 헤집고 들어가는 카메라 워크처럼 처절하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시키는 이 영화는, 오랜만에 아카데미 위원회가 제대로 된 임자에게 영광을 안겼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

영화평론가 김지훈





총각네 야채가게

- 김영한 · 이영석 지음 -

총각네 야채가게(정식 상호는 '자연의 모든 것') - 이 독특한 이름의 야채/생선 가게는 재고율 0%, 매장에서 벌이는 각종 퍼포먼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까지 단골고객을 찾아오게 만드는 고품질의 상품으로 강남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전공한 뒤 이벤트 기획사에 다니다가 야채장사를 시작했다는 사장 이영석 씨의 독특한 이력 덕분일까? 총각네 야채가게가 파는 것은 단순한 야채, 과일이 아니라, 까다롭기로 이름난 강남 아줌마들을 충성스런 소비자로 만들어 버린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총각네 야채가게는 그 엄청난 성공신화에 힘입어 각종 언론에 노출되었고, 사장 이영석 씨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마케팅의 '권위자'가 되었다. 총각네 야채가게라는 제목의 이 책 역시 이런 성공신화에 깊은 인상을

받은 마케팅 분야의 권위자 김영한 씨에 의해 저술되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단순히 마케팅 방법론, 혹은 경영 성공담이라기보다는 장인정신에 관한 책에 가깝다.

성공신화의 비밀, 정직성과 열정

'총각네...'의 사장 이영석 씨가 처음 장난처럼 장사를 시작했을 때, 물건(마른 오징어)을 받아온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어떤 것이 좋은 오징어나' 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은 후, 납품(?) 받은 오징어를 보니 좋은 물건임이 확실해 자신을 가지고 물건을 팔았다는 일화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마케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팔고 있는 상품이 고객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믿는 확신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마케팅은 사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 물론 '총각네'가 벌이는 각종 퍼포먼스라든지, 활기찬 매장 분위기 역시 매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성공신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최상급의 물건만을 떼어오는 이영석 씨의 '맛있는 과일/야채'에 대한 장인정신이다.

최근 '식객'이란 식당락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유명만화가 허영만 씨가 취재차 이영석 씨의 새벽쇼핑(?)에 따라나섰을 때,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과일을 시식했다하니 이 일을 매일 같이 하는 이영석 씨가 가지고 있는 과일/야채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이 책의 가치는 바로 이런 정직성과 일에 대한 열정이 어떤 마케팅 수법이나 처세술보다도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는 감동에 있지 않을까 싶다. Ⓣ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꽃 피는 아름다운 4월에

감 미로운 봄바람이 꽃가를 스치고 파아란 새싹이 터질 듯 부풀어오르는 아름다운 4월이다.

본격적인 봄의 시작

봄이 되면 겨우내 한반도를 짓누르던 대륙성 고기압이 점차 약화되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고, 저기압이 빈번하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문에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자주 바뀌는 변덕스런 날씨를 보인다. 낮 기온이 18도까지 상승하면서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씨가 되며, 월 평균 강수량은 88mm 정도로 긴 겨울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양이다. 한편, 봄의 불청객 황사는 연평균 3회 정도 발생하는데 그 중 반 이상이 4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흡기나 안과질환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대기가 건조한 시기, 산불조심!

4월은 계절 특성상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45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그 중 33%인 150여 건이 4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하루에 5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4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목에는 아직 수액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많으며, 기온 상승으로 인해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의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은 산불의 확산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켜,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실제 산불로 인한 연간 산림피해의 75% 정도가 4월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은 물론 사격훈련이나 야외훈련 시 산불방지를 위한 장비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월의 절기로는 황하의 물이 연중 가장 깨끗하다는 청명(淸明)을 비롯해 식목일, 한식(寒食)이 모두 5일이며, 촉촉한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가 20일이다.

봄바람에 나부끼는 여인네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는 계절. 봄기운에 취한 나비들은 꽃 숲 사이로 날아다니고, 봄처녀의 콧노래 흥얼거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릴 듯하다.

이렇듯 아름다운 4월이지만, 황사피해를 줄이고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 무위의 전력손실을 막음으로써 명랑한 병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때이기도 하다. ⚡

기상전대 대령 염영경



독자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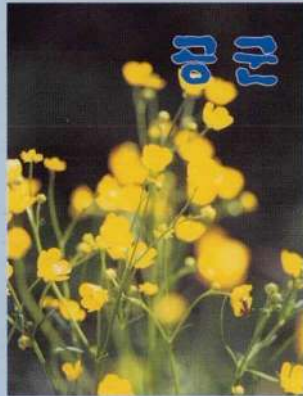
『테마가 있는 나들이』 코너에서 전주에 대한 내용을 알차게 소개해 주어 꼭 한 번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월간 『공군』 담당자분들,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호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최소연

군대에서의 절제된 생활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림 이야기』 코너에 나온 칸트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다뤄줘서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충북 충주시 금가면 손범석

『특별기획 - 공군인이 되는 7가지 방법』 코너를 가장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신



분별 지원방법 및 특이사항 설명이 유익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요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독도문제에 관해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최병근

남자 친구가 공군에 입대한 후론, 매달 학교 도서관에서 월간 『공군』을 찾아서 봅니다. 따뜻한 내용 가득한 월간 『공군』을 보니, 남자 친구가 공군에 간 것이 참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공군 파이팅!

충남 서산시 고북면 김유라

『공군소식』 코너에 소개된 19전투비행단의 즐거운 병영생활 기사가 가장 인상에 남네요. 달라져 가는 병사들의 생활 모습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앞

으로도 알찬 내용 가득한 월간 『공군』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박태식

『화제의 공군인』 코너에 소개된 이득수 원사의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월간 『공군』, 언제나 보기 쉬운 편집으로 독자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볼게요.

충남 계룡시 두마면 김미정

『특별기획 - 공군인이 되는 7가지 방법』을 가장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친구에게 공군 입대를 권유하고 있는데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많아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월간 『공군』, 앞으로도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충북 충주시 금가면 황준식

깔끔한 구성과 유익한 내용의 월간 『공군』,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하겠습니다. 편집실 여러분, 파이팅!

경남 김해시 내동 전일영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6.1~2006.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호) 6231~7, 02) 506-6231~7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2005. 4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다른 그림 찾기

▶ 이번호 문제



• 사진설명 :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지난호 정답



▶ 지난호 당첨자

- 충북 충주시 금가면 이승표
- 전남 목포시 연산동 김우영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강석범
- 경남 사천시 사천읍 공유진
- 충북 충주시 금가면 황준식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변찬홍
-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최소연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최윤득
-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영옥
- 충남 서산시 해미면 노정호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호에도 많은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4월 20일까지

선글라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안정훈

영화 탑건에서 주인공 탐 크루즈가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모습은 가히 압권이다. 영화 공동 경비구역 JSA에서 이병헌이 선글라스를 낀 모습도 인상적이다. 탐 크루즈는 강한 태양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폭도 잡으려고 착용한 것 같다. 이병헌은 북한 경비병들을 감시하는 자신의 눈동자를 감추고 위압감을 주기 위해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종사들에게는 선글라스가 지급품목이다. 만 미터가 넘는 고공에서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종사 헬멧에는 빛을 차단할 뿐 아니라 자외선과 적외선을 조절하는 고글이 부착되어 있다. 조종사에게 선글라스나 고글은 품이 아니라 필수품인 것이다.

선글라스의 유래

선글라스가 생긴 유래를 살펴보면 왜 조종사의 필수품인지 쉽게 알게 된다.

1930년 육군 항공단 존 맥클래디(John Macgregory) 중위는 논스톱으로 대서양을 횡단했다. 이때 고공 비행 중 강렬한 햇빛으로 인한 심한 두통과 구토증세를 막기 위해 바슈롬 안경제조사에 보안경 제작을 의뢰했다. 바슈롬사는 이러한 요구를 충

족하기 위해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최초의 선글라스인 레이 밴 녹색렌즈였다.



1936년 바슈롬사는 최초의 상업적 선글라스를 생산하여 일반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했다. 당시 일반 선글라스가 25센트였는데 레이 밴 선글라스는 3.75달러라는 비싼 가격에 서판되었음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65년에는 액세서리 용도로 개발한 선글라스에 대한 일반인의 선호도가 높아지자 디자인을 개선한 신제품을 내놓아 다시 한번 인기를 끌었다.

이후 모양과 장식, 색깔 처리 방법, 스포츠용 등 다양한 렌즈를 계속 개발하여 1986년에는 16가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레이 밴을 출시, 특화된 기능성 선글라스 시대를 열었다.

멋쟁이의 원조, 군인

일반적으로 흥재가 푸른 백인종은 흥재가 검은 유색인종보다 눈이 부신 정도가 민감하다. 이런 속사정 때문에 서양에서 선글라스가 더 애용된다. 보통의 건강한 한국사람들이 국내에서 선글라스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한국의 성인남녀 중 선글라스 한 개 정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일반화 되어 있다.

흔히 군인들은 딱딱하고 멋대加里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밀리터리 패션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안전을 위해 개발된 선글라스가 멋쟁이들의 필수품으로 진화한 것을 보면서 군인이야말로 멋쟁이의 원조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

알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원고 : 화제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동아리 마당, 장병문예(시·소설·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 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보 낼 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mil.kr, (인트라넷) ksh0450@af.mil

문 의 02)506-6233, 6233



공군 예비역 장교 진급 선발 안내

공군은 예비역 장교들의 사기증진 및 애군심 고취를 목적으로 「'05년 공군 예비역 장교 진급 선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 **진급대상** : 중위→대위, 대위→소령
- ◆ **지원서 교부/접수**
 - 접수기간 : '05. 3. 21. ~ 4. 30. (토요일 오후,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공군 홈페이지에서 접수(온라인 모병센터/예비역 공간→예비역 진급선발→지원서 작성)
 - 우편접수(등기속달) : 우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05호
 - 부대창구 접수(지역공군부대 민원실)
- ◆ **진급자 혜택**
 - 진급선발 당해연도 동원훈련 1회 면제(기훈련 수료자는 익년도 훈련면제)
 - 동일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교와 동등한 대우
 - 국방부장관 임명장, 계급장 및 기념품 수여

2005

제27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공군본부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대한민국항공회,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우주항공연구원